

ISSUE

2020. 12.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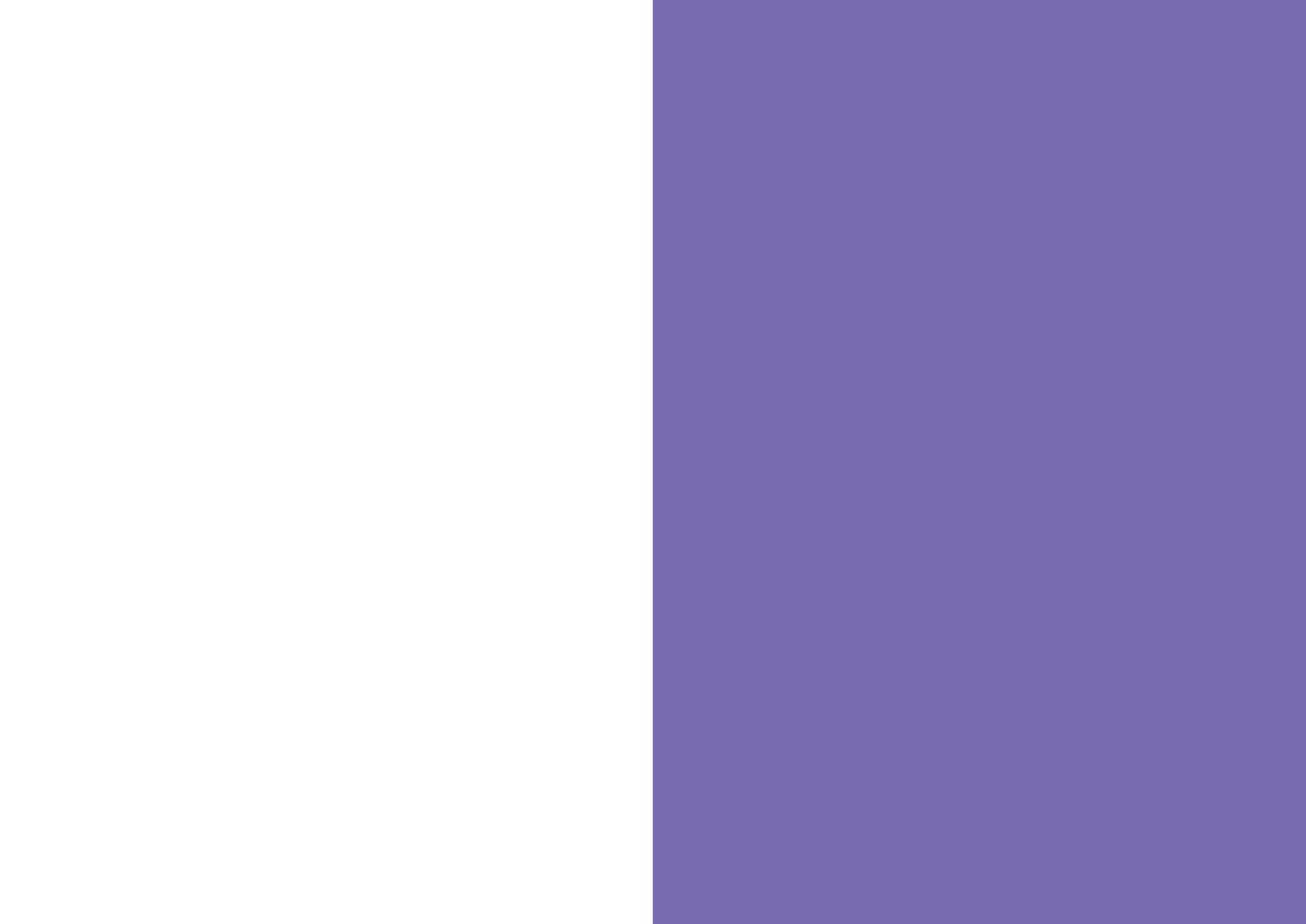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2020년 광주형 50+ 당사자연구

- 01 50+세대 디지털 격차 실태분석과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방안 | 협동조합 한국50+ 희망발전소
- 02 5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연구 | (사)빛고을정책연구센터
- 03 50+ Well alone 평생학습 모델 연구 |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광주평생교육진흥원
G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ISSUE PAPER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2020년 광주형 50+ 당사자연구



ISSUE PAPER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2020년 광주형 50+ 당사자연구

발간사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노후가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 광주’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일자리 ▲사회참여·문화 ▲돌봄·인권 ▲건강·의료 ▲생활환경 등 5개 영역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시정가치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재단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2020년에 ‘광주형 50+ 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0+ 세대(만 50세 이상 65세 미만)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연구자가 되어 현장감 있는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의제 발굴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정책의제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50+ 당사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세대와 관련된 현장 중심의 구체적 이슈를 스스로 탐색하고 발굴하는 기회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의 지향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미한 시도인 것입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사회적경제, 디지털 격차, 인문학이라는 각각의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가지 주제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의 삶과 밀접하고 특화된 평생교육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말은바 연구에 성실히 임해준 3개 기관(협동조합 한국50플러스희망발전소, 빛고을정책연구센터,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연구진과, 심사부터 자문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해주신 전남대학교 차성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ISSUE PAPER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2020년 광주형 50+ 당사자연구

CONTENTS

01

50+세대 디지털 격차 실태분석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방안

협동조합 한국50+ 희망발전소

02

5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연구

(사)빛고을정책연구센터

03

50+ Well alone 평생학습 모델 연구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1

50+세대 디지털 격차 실태분석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방안

협동조합 한국50+ 희망발전소

책임연구원 | 이철재

공동연구원 | 서순복

공동연구원 | 김석

공동연구원 | 박마리아

CONTENTS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50+세대와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기초	15
1. 50+세대의 범주와 특성	
2. 디지털 정보격차의 이론적 토대	
3. 50+세대와 노년층세대의 디지털활용과 정보격차	
III. 50+세대와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분석	18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IV. 디지털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34
1. 요약	
2. 교육 프로그램 제안	
참고문헌	38

” 요약 “

50+ 세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년층 노년층 인구의 디지털 소외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음. 젊은 세대들과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나아가 50+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인공지능(AI)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정보격차를 극복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활용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본 조사연구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나, 외로움으로 인한 불편 정도는 미미하지만,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만큼 50+ 세대나 노인층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수요가 높다고 판단됨. 디지털 정보격차를 벗어나고 싶다는 관심층은 전체 유효응답자 중 65.1%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다중선택)은 동영상 & 유튜브 교육(12.9%) > 영상 만들기(11.3%) > 생활에 필요한 앱(10.8%) > 사진 촬영과 편집(10.7%) > 컴퓨터 기초(9.9%) > OA 교육(9.3%) > SNS 교육(9.1%) > 스마트폰 기초 (9.0%) > 클라우드 활용(8.7%) > 네트워크 설정(8.4%) 순으로 조사됨. 가장 신청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동영상 및 유튜브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교육 프로그램 수요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동영상 & 유튜브 > 컴퓨터 기초교육 > 생활 앱 활용 > 영상 활용 순으로 같았음.

본 연구조사에서 50+세대와 65세 이상 세대가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소외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하고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꺼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50+세대와 65세 이상 세대들은 컴퓨터 활용능력보다는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능력 향상을 더 바라고 있음도 알 수가 있음.

본 연구는 더 많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평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활용능력을 4대 영역(디지털기초 이해, 컴퓨터 활용능력, 스마트폰 활용능력, 스마트 라이프 활용능력)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음.

50+세대 디지털 격차 실태분석과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방안

50+ 세대의 당사자 연구를 통해 디지털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노인을 포함한 50+ 세대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제안으로 중년의 삶을 활력있게 구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 등으로 50+ 세대 인구 급증
 - 50+ 세대는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회적 활동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인구 집단으로 평가됨
 - 50+ 세대는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으며, 인구 규모 면에서 타 세대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은퇴와 고령화를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약 2,693만 명 중 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19%인 512만 명이며, 만 60세 이상 전체 인구(1,187만여 명)의 약 43.1%가 일을 하고 있음
 - 일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있음
- 최근 자동화 무인화로 바뀌면서 나타난 것들은 사기업에서는 무인주문기, 배달 대행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기차 예매 등이 있으며, 공공영역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앱을 활용한 민원, 입법예고, 부패·공익신고, 주소 변경 등을 실시 중
 -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는 자동화로 인한 단점 중 하나.
 - 장년층 노년층 인구의 디지털 소외는 갈수록 더 해가고 있음
 -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보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불편은 노인을 포함한 사회 소외계층에게 가중됨

- 젊은 세대와 소통과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나아가 50+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특히 50+ 세대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창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음

- 무엇보다 50+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디지털 활용 실태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4차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 인공지능(AI)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특히 50+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 격차를 극복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디지털 활용을 청년세대만큼 잘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면 재취업 일터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녀나 손자 나아가 또래 어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소외나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음

- 은퇴한 50+ 젊은 노인들의 잠재역량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지금은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휴대폰의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함.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50+ 세대,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 현상을 호소함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중심으로 50+ 세대의 당사자 연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50+ 세대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시행해, 활력있는 중년의 삶을 멋지게 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함

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한 문헌 연구와 50+ 세대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50+ 세대와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종이로 인쇄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을 병행
- 통계분석은 SPSS 18과 Excel 분석을 이용하였음

II 50+세대와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기초

2. 50+ 세대의 범주와 특성

- 50+ 세대의 나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50+ 세대와 유사한 인구 집단으로 중장년, 신중년, 장노년 등이 있는데, 이 세대를 가장 대표하는 인구 집단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음(김정근, 최재원, 2019 재인용)
- 서울특별시는 2015년 조직개편을 통해 50+ 세대를 만 50세에서 64세의 장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를 통하여 장노년 세대를 만 50세에서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 50+ 세대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 문제가 아니라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삶에 대한 개인적 대책과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50+ 세대는 노동시장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확인되고 있음(한국노동연구원, 2015).

- 한국노동 패널조사 장년층 부가 조사(2015)에 따르면, 노동시장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50+ 세대는 전체의 41.4% 수준으로 나타남

- 50+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희망 나이도 증가하고 있는데,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72세까지 소득 또는 보람 있는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고용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50+ 세대의 특성(조미정, 이재정, 이기영, 2016)

- 첫째,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였거나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노후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상당수가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을 희망하고 있음
- 둘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진학단계에서 격심한 경쟁을 치러야 했으며, 본인들이 경험한 불공평한 교육의 경험을 자녀 세대들이 겪지 않도록 자녀 세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올리기도 했음
- 50+ 세대는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 외환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정, 소득감소 등을 경험한 최대 피해자이기도 함
- 이들의 자산은 대부분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율이 높아 노화로 인한 위험을 대처할 경제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 50+세대는 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와 더불어 본인들의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비용까지 즉, 생산과 소비,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그 이유로 50+ 세대는 기존의 노인집단과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 행동양식, 교육수준을 가짐(나현미, 심지현, 2016)
- 현재 은퇴를 맞이하였거나 혹은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지출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지만 연령의 제한으로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의 취업 욕구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김대건,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 디지털 정보격차의 이론적 토대

■ 정보격차의 개념

-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특성 차이에 따른 정보 접근, 이용 능력,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differences) 또는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임(이홍재, 2019: 225).

- 정보격차는 초기와는 달리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서순복, 2002).
- 초기에는 디지털 기기 보유와 인터넷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haves)와 그렇지 못한 자(have-nots) 간의 차이가 강조되고,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정보격차는 물리적 접근의 차이보다는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과 정보의 활용, 그리고 결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정보격차를 50+ 세대를 특히 염두에 두고 정보격차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50+ 세대를 포함한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대안으로서 교육 수요조사와 대안에 관한 수요조사 차원에서 연구하고자 함

-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수준, 지리적 여건, 신체적 장애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야기되는 정보의 빈부격차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을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기회를 누리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로 보고자 함

■ 정보격차 해소의 중요성

-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진 자(haves)와 못 가진 자(have-nots) 사이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새로운 국제적,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동법 제3조 제9호). 이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31조).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 정보기술에 대한 접속 여부와 정보이용능력이 정보사회 포섭계층(Digital Include)과 배제계층(Digital Exclude)으로 구분하게 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이제 21세기 시민의 핵심권리(가칭 정보복지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3. 50+ 세대와 노년층 세대의 디지털 활용과 정보격차

■ 연령대별 정보격차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국민들의 디지털정보화 능력 수준을 접근, 역량, 활용 총 3가지로 나누어서 통계를 산출.

-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은 ‘유선 및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로 측정됨. 일반국민이 100%일 때 40대까지는 100% 초과이지만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현저하게 디지털 활용능력이 낮아짐을 볼 수 있음. 70대는 디지털 활용능력이 절반도 되지 않는 36.9%로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은 물론 농어민,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보다도 낮은 실정임
-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고령층은 64.3%에 불과함. 특히 디지털 접근 수준(90.6%)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역량(51.6%)과 활용(63.9%) 수준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층의 정보격차가 디지털 접근보다는 디지털 이용 능력이나 활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III 50+세대와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분석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연령대별 통신기기(스마트폰, PC, 스마트 TV, 노트북, 태블릿 PC 보유비율, 컴퓨터 활용 용도, 노인과 청년의 정보격차 등을 조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미디어 활용능력에 따른 50+ 세대를 포함한 고령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대처방안에 관하여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하고, 빛고를 50+ 단체의 브레인스토밍 방식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혜를 도출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본 설문조사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근교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음
-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우체국 인터넷플라자를 활용한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 연구'(서순복, 2002),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확인을 위한 문항 개발 및 능력평가'(김민하, 안미리, 2003), '중장년 학습자들의 스마트 워커 교육 후 디지털 역량 변화에 관한 연구'(박마리아, 2018), '서울 디지털시민 학교 디지털 사용 역량,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휴대폰 활용 자립도 조사 설문지 설계'를 기초로 재구조화하여 작성됨

<표 3-1> 설문 문항 설계

번호	항목	
1	현재 느끼는 감정	일상의 외로움, 외로움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 외로움 극복 방법, 일상의 행복, 일상의 바쁜 생활, 친구 유무, 디지털 기기의 사용 적응력,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불편함
2	컴퓨터 사용	컴퓨터 보유, 컴퓨터 사용, 교육 횟수, 컴퓨터 사용, 컴퓨터 사용 정도
3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유무, 인터넷 사용 불편한 점, 바이러스 정보, 인터넷 사용 목적, 인터넷 사용 정도
4	스마트폰 활용	보유기기, 스마트폰 이용 기간, 스마트폰 이용 시간, 새로운 기기 구매할 때,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 활용 정도
5	디지털 이해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격차와 소외를 느끼는 정도, 디지털 격차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도, 디지털 사용 습관
6	디지털 교육	교육 유무, 교육받은 기관, 컴퓨터 활용점수, 스마트폰 활용점수, 필요한 교육(모두 선택), 가장 필요한 교육, 교육 참여 의사,
7	인구통계학적 문항	성별, 연령대, 취업 유무, 직업

- 설문 문항은 현재 감정 상태, 컴퓨터 사용,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에 대한 이해, 디지털 교육,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

■ 조사 도구

- 본 연구는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음
- 요인별 신뢰도는 컴퓨터 활용 정도 .931, 인터넷 활용 정도 .904, 스마트폰 활용 정도 .956, 디지털 격차 .791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요인별 신뢰도 분석 (n=418)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컴퓨터 활용 정도	4	.931	C1	3.72	1.209
			C2	3.92	1.364
			C3	3.79	1.351
			C4	3.53	1.357
인터넷 활용 정도	3	.904	n1	4.06	1.310
			n2	4.01	1.260
			n3	3.47	1.544
스마트폰 활용 정도	13	.956	m1	4.21	1.157
			m2	4.06	1.200
			m3	3.78	1.331
			m4	4.41	0.931
			m5	4.05	1.285
			m6	4.16	1.156
			m7	3.57	1.487
			m8	3.93	1.281
			m9	3.66	1.473
			m10	3.91	1.413
			m11	3.77	1.426
			m12	3.94	1.264
			m13	3.02	1.505
디지털 격차	3	.781	d1	2.46	1.165
			d2	3.05	1.371
			d3	2.92	1.306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본 연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18명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 거주지역, 취업유무, 직업별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성별 비율은 남성 206명(49.3%), 여성 212명(50.7%), 연령대별로는 49세 이하의 응답은 69명(16.6%, 50+세대(50세 이상-65세 미만) 268명(64.1%), 65세 이상은 81명(19.4%) 응답함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24명(5.7%), 고졸 73명(17.5%), 대졸 195명(46.7%), 대학원졸 126명(30.1%)로 대졸 이상이 321명(76.8%)로 조사되었고, 거주지역 별로는 광산구 55명(13.2%), 남구 89명(21.3%), 동구 37명(8.9%), 북구 145명(34.7%), 서구 83명(19.9%), 광주외 지역 9명(2.2%)이 응답하였음
- 취업유무는 무직 103명(24.6%), 재직 중 13명(3.1%), 취업은 아니지만 소득 활동 중 267명(63.9%), 퇴직 후 재취업 35명(8.4%)이고, 직업별 응답은 자영업 27명(6.5%), 농/어/임업 6명(1.4%), 공무원 20명(4.8%) 관리/사무직 40명(9.6%), 서비스/판매직 40명(9.6%), 기술직 36명(8.6%), 교·강사(프리랜서 포함) 69명(16.5%), 예술계종사자 7명(1.7%), 학생(대학원생 포함) 2명(0.5%), 주부 50명(12.0%), 무직(기타) 74명(17.7%)로 조사되었음

취업유무	무직	103	24.6
	재직 중	13	3.1
	취업은 아니지만 소득활동 중	267	63.9
	퇴직 후 재취업	35	8.4
직업별	자영업	27	6.5
	농/어/임업	6	1.4
	공무원	20	4.8
	관리/사무직	87	20.8
	서비스/판매직	40	9.6
	기술직	36	8.6
	교·강사(프리랜서 포함)	69	16.5
	예술계 종사자	7	1.7
	학생(대학원생 포함)	2	0.5
	주부	50	12
	무직(기타)	74	17.7

<표 3-3> 인구통계학적 분석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	206	49.3
	여	212	50.7
연령별	45세 미만	32	7.7
	45~49세	37	8.9
	50~54세	87	20.8
	55~59세	96	23
	60~64세	85	20.3
	65~69세	59	14.1
	70세 이상	22	5.3
학력	중졸이하	24	5.7
	고졸	73	17.5
	대졸	195	46.7
	대학원졸	126	30.1
거주지역	광산구	55	13.2
	남구	89	21.3
	동구	37	8.9
	북구	145	34.7
	서구	83	19.9
	광주외지역	9	2.2

2. 조사 결과

[50+세대와 노인층의 정보격차 평균 차이 분석]

■ 나이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 나이에 따른 컴퓨터 사용 정도

<표 3-4> 나이와 컴퓨터 사용 정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나이 x 컴퓨터 사용 정도	제공합	df	평균제곱	F-value	p	
윈도우 사용 정도	집단-간	33.596	6	5.599	3.997	.001
	집단-내	575.766	411	1.401		
	합계	609.361	417			
보조기억장치 사용정도	집단-간	28.527	6	4.754	2.616	.017
	집단-내	747.023	411	1.818		
	합계	775.55	417			
문서작성 정도	집단-간	20.388	6	3.398	1.885	.082
	집단-내	741.086	411	1.803		
	합계	761.474	417			
SNS 이용 정도	집단-간	50.095	6	8.349	4.779	.000
	집단-내	718.001	411	1.747		
	합계	768.096	417			

- 나이에 따른 컴퓨터 사용 정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컴퓨터 사용정도는 윈도우 사용, SNS 사용 정도 $p < .01$, 보조기억장치 사용 $p < .05$ 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음

- 나이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은 <표 3-5>와 같으며, 나이에 따른 인터넷 사용정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5> 나이에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나이 x 인터넷 사용 정도		제공합	df	평균제공	F-value	p
이메일 사용정도	집단-간	5.847	6	.975	.564	.759
	집단-내	709.657	411	1.727		
	합계	715.505	417			
정보검색 정도	집단-간	2.403	6	.400	.250	.959
	집단-내	659.559	411	1.605		
	합계	661.962	417			
전자민원 사용정도	집단-간	11.593	6	1.932	.808	.564
	집단-내	982.562	411	2.391		
	합계	994.156	417			

* $p < 0.1$, ** $p < 0.05$, *** $p < 0.01$

-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정도 일원배치분산분석은 <표 3-6>과 같으며,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활용 정도는 와이파이 활용, 앱설치 삭제, 벨소리 설정 바꾸기, 메일 송수신, 자료검색 활용 정도, SNS 활용 정도, 교통 앱 활용 정도, 모바일뱅킹 활용, 스마트폰 쇼핑 활용, 배달 앱 활용 $p < .01$, 사진 보내고 받기 $p < .05$ 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음

<표 3-6> 나이와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

나이 x 인터넷 사용 정도		제공합	df	평균제공	F-value	p
와이파이 설정정도	집단-간	51.663	6	8.61	6.989	.000***
	집단-내	506.387	411	1.232		
	합계	558.05	417			
앱 설치 삭제 활용정도	집단-간	65.471	6	10.912	8.38	.000***
	집단-내	535.151	411	1.302		
	합계	600.622	417			
벨소리 설정 활용정도	집단-간	32.911	6	5.485	3.192	.004***
	집단-내	706.278	411	1.718		
	합계	739.189	417			
사진 보내고 받기 활용정도	집단-간	13.1	6	2.183	2.576	.018**
	집단-내	348.299	411	0.847		
	합계	361.4	417			
메일 보내고 받기 활용정도	집단-간	30.169	6	5.028	3.137	.005***
	집단-내	658.673	411	1.603		
	합계	688.842	417			
자료 검색 활용정도	집단-간	33.254	6	5.542	4.35	.000***
	집단-내	523.638	411	1.274		
	합계	556.892	417			
문서 보기 활용정도	집단-간	81.173	6	13.529	6.611	.000***
	집단-내	841.028	411	2.046		
	합계	922.201	417			
SNS 활용정도	집단-간	51.714	6	8.619	5.604	.000***
	집단-내	632.133	411	1.538		
	합계	683.847	417			
교통앱 활용정도	집단-간	87.016	6	14.503	7.292	.000***
	집단-내	817.376	411	1.989		
	합계	904.392	417			
뱅킹 활용정도	집단-간	96.803	6	16.134	9.013	.000***
	집단-내	735.743	411	1.79		
	합계	832.545	417			
쇼핑 활용정도	집단-간	122.252	6	20.375	11.54	.000***
	집단-내	725.7	411	1.766		
	합계	847.952	417			
스케줄 관리앱 활용정도	집단-간	18.761	6	3.127	1.986	.066
	집단-내	646.973	411	1.574		
	합계	665.734	417			
배달앱 활용정도	집단-간	124.685	6	20.781	10.414	.000***
	집단-내	820.121	411	1.995		
	합계	944.806	417			

* $p < 0.1$, ** $p < 0.05$, *** $p < 0.01$

■ 나이, 학력에 따른 컴퓨터 활용점수 교차분석

- 나이와 컴퓨터 활용점수에 대한 교차분석은 <표 3-7>과 같음

- 전체 응답 비율은 50세 미만 69명(16.5%), 50~64세 268명(64.1%), 65세 이상 81명(19.4%)이 응답을 하였으며, 세대별로 컴퓨터 활용점수가 3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세 미만의 경우 69명 중 62명인 89.9%, 50~64세 268명 중 212명 79.1%, 65세 이상 81명 중 52명 64.2%¹⁾ 임
- 나이에 따른 컴퓨터 활용점수 차이를 교차분석 결과 $\chi^2 = 25.616, P = .001$ 로, 나이에 따른 컴퓨터 활용점수 차이는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표 3-7> 나이에 따른 컴퓨터 활용점수의 차이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3	5.02	21	8.37	18	4.31	42	10.0	25.616***
2점	4	8.37	35	19.86	11	2.63	50	12.0	
3점	22	19.86	83	4.31	25	5.98	130	31.1	
4점	21	19.86	83	4.31	18	4.31	122	29.2	
5점	19	11.00	46	2.15	9	2.15	74	17.7	
계	69	64.10	268	19.40	81	19.40	418	100	

* $p < 0.1$, ** $p < 0.05$, *** $p < 0.01$

- 학력에 따른 컴퓨터 활용점수에 대한 교차분석은 <표 3-8>과 같음

- 학력에 따른 컴퓨터 활용점수 차이를 교차분석하였음. 그 결과 $\chi^2 = 110.212, P = .000$ 으로 학력에 따른 컴퓨터 활용점수 차이는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표 3-8> 학력에 따른 컴퓨터 활용 점수 차이 (단위 : 명, %)

구분	컴퓨터 점수					전체	χ^2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졸 이하	14	4	3	2	1	24	110.212***
고졸	16	15	24	13	5	73	
대졸	10	23	62	60	40	195	
대학원 졸	2	8	41	47	28	126	
전체	42	50	130	122	74	418	

* $p < 0.1$, ** $p < 0.05$, *** $p < 0.01$

1) 전체 응답자 빈도에 대한 비율이 아닌 세대별 빈도 합계에 대한 응답 비율 표기함.

■ 나이, 학력에 따른 스마트폰 활용점수 교차분석

-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점수에 대한 교차분석은 <표 3-9>와 같음

- 전체 응답 비율은 50세 미만 69명(16.5%), 50~64세 268명(64.1%), 65세 이상 81명(19.4%)이 응답을 하였음. 세대별로 스마트폰 활용점수가 3점 이상(5점만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세 미만의 경우 69명 중 65명인 94.2%, 50~64세 268명 중 226명 84.3%, 65세 이상 81명 중 55명 67.9%¹⁾임.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3점 이상 즉 컴퓨터 활용을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노인층의 경우 5점으로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1점으로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음
-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활용점수 차이를 교차분석 결과 $\chi^2 = 30.466, P = .000$ 으로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활용점수 차이는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표 3-9> 나이에 따른 컴퓨터 활용 점수의 차이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점	2	0.5	11	2.6	12	2.9	25	6.0	25.616***
2점	2	0.5	31	7.4	14	3.3	47	11.2	
3점	18	4.3	85	20.3	23	5.5	126	30.1	
4점	26	6.2	94	22.5	24	5.7	144	34.4	
5점	21	5.0	47	11.2	8	1.9	76	18.2	
계	69	16.5	268	64.1	81	19.4	418	100.0	

* $p < 0.1$, ** $p < 0.05$, *** $p < 0.01$

■ 나이에 따른 디지털 기기 사용

<표 3-10> 나이에 따른 데스크톱 사용 빈도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용하지 않는다	43	62.3	167	62.3	57	70.4	267	63.9
사용한다	26	37.7	101	37.7	24	29.6	151	36.1
계	69	100.0	268	100.0	81	100.0	418	100.0

2) 전체 응답자 빈도에 대한 비율이 아닌 세대별 빈도 합계에 대한 응답 비율 표기함.

<표 3-11>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빈도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용하지 않는다	3	4.3	14	5.2	5	6.2	22	5.3
사용한다	66	95.7	254	94.8	76	93.8	396	94.7
계	69	100.0	268	100.0	81	100.0	418	100.0

<표 3-12> 나이에 따른 태블릿 PC 사용 빈도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용하지 않는다	43	62.3	201	75.0	68	84.0	312	74.6
사용한다	26	37.7	67	25.0	13	16.0	106	25.4
계	69	100.0	268	100.0	81	100.0	418	100.0

[정서적 요인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관계]

■ 일상의 외로움

-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유효 응답자 418명 중 57.7%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로 조사되었음
-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노인층의 외로움을 담당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본 조사연구에서 외롭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아직 영국과 같은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일상의 외로움의 빈도는 <표 3-13>와 같음

<표 3-13> 일상의 외로움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4	3.3	68	16.3	27	6.5	109	26.1
그렇지 않다	25	6.0	83	19.9	24	5.7	132	31.6
보통이다	20	4.8	78	18.7	18	4.3	116	27.8
그렇다	5	1.2	31	7.4	8	1.9	44	10.5
매우 그렇다	5	1.2	8	1.9	4	1.0	17	4.1
계	69	16.5	268	64.1	81	19.4	418	100.0

■ 일상의 외로움으로 인한 생활 불편

- 외로움으로 인한 생활 불편은 전체 유효 응답자 385명 중 70.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로워서 생활 불편을 느끼는 응답자는 9.9%로 조사되었고, 나이별 빈도는 표 <3-14>와 같음

<표 3-14> 일상의 외로움으로 인한 생활 불편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	5.5	95	24.7	33	8.6	149	38.7
그렇지 않다	26	6.8	79	20.5	18	4.7	123	31.9
보통이다	11	2.9	49	12.7	15	3.9	75	19.5
그렇다	7	1.8	19	4.9	4	1.0	30	7.8
매우 그렇다	1	0.3	4	1.0	3	0.8	8	2.1
계	66	17.1	246	63.9	73	19.0	385	100.0

■ 외로움의 정서적 상태 해소 방안

- 본 조사연구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외로움의 정서적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나, 외로움으로 인한 불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으며,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전체 응답자 385명 중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전체 유효 응답자 중 74명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중 50+ 세대의 응답자 246명 중 40명 16.3%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50+ 세대나 노인층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며, 외로움의 정서적 상태 해소방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3-15>와 같음

<표 3-15>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방편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행	9	2.3	17	4.4	4	1.0	30	7.8
걷는다	2	0.5	37	9.6	14	3.6	53	13.8
음악 듣기	2	0.5	20	5.2	5	1.3	27	7.0
책 읽기	5	1.3	21	5.5	5	1.3	31	8.1
친구랑 이야기	9	2.3	35	9.1	7	1.8	51	13.2
영화 드라마 보기	7	1.8	24	6.2	7	1.8	38	9.9
혼자즐기기	7	1.8	32	8.3	14	3.6	53	13.8
멍청히 있기	3	0.8	2	0.5	1	0.3	6	1.6
인터넷, 스마트폰	19	4.9	40	10.4	15	3.9	74	19.2
기타	3	0.8	18	4.7	1	0.3	22	5.7
계	66	17.1	246	63.9	73	19.0	385	100.0

[디지털 정보격차에 관한 조사 결과]

-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알고 있고, 생활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유효 응답자 중 45명(10.8%),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4명(10.5%),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8명(23.4%),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8명(30.6%),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3명(24.6%)도 다음 <표 3-16>와 같음

<표 3-16>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과 생활에 끼칠 영향력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5	10.8
그렇지 않다	44	10.5
보통이다	98	23.4
그렇다	128	30.6
매우 그렇다	103	24.6
계	418	100.0

- 디지털 격차와 소외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10명(26.3%), 그렇지 않다 102명(24.4%), 보통이다 131명(31.3%), 그렇다 52명(12.4%), 매우 그렇다 23명(5.5%)으로 <표 3-17>과 같음

<표 3-17> 디지털 격차와 소외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0	26.3
그렇지 않다	102	24.4
보통이다	131	31.3
그렇다	52	12.4
매우 그렇다	23	5.5
계	418	100.0

- 디지털 격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설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유효 응답자 중 79명(18.9%),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67명(16.0%), '보통이다'라는 응답자는 104명(24.9%), '그렇다'라는 응답자는 90명(21.5%),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는 78명(18.7%)으로 <표 3-18>과 같이 조사되었음

• 즉 디지털 정보격차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심 없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은 전체 유효 응답자 중 34.9%를 차지하였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벗어나고 싶다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응답자는 전체 유효 응답자 중 40.2%로 나타나 무관심 또는 부정적 응답자보다 정보격차 해소를 향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긍정적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음.

• 24.9%라는 유보적 응답자까지 포함한다면 디지털 정보격차를 벗어나고 싶다는 관심층은 65.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3-18> 디지털 격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9	18.9
그렇지 않다	67	16.0
보통이다	104	24.9
그렇다	90	21.5
매우 그렇다	78	18.7
계	418	100.0

- 그러나 '디지털 격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설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전체 유효 응답자 중에서 86명(20.6%),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63명(15.1%), '보통이다'라고 유보적 응답한 사람은 121명(28.9%),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95명(22.7%),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3명(12.7%)으로 다음 <표 3-19>과 같음

<표 3-19> 디지털 격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응답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6	20.6
그렇지 않다	63	15.1
보통이다	121	28.9
그렇다	95	22.7
매우 그렇다	53	12.7
계	418	100.0

3.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는 무엇보다 교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이뤄져야 함
 - 본 연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됨
 - 50+ 세대와 노인층의 디지털 정보화 교육은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수요자의 상태를 관심 대상으로 해야 하는바, 교육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그에 걸맞은 교육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욕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서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며, 수요자가 어떤 인지적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그에 상응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육받은 경험

- 먼저 설문 대상자들에게 최근에 디지털 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하였음

-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횟수는 1회 66명(15.8%), 2~3회(13.9%), 4~5회(4.8%), 5회 이상 51명(12.2%)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 유효 응답자 418명 중 223명(5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교육받은 횟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표 3-20>과 같음
-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0세 미만 44명(63.8%), 50+ 세대 144명(53.7%), 65세 이상 35명(43.2%)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수요가 압도적으로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0> 3년 이내 교육 받은 횟수 (단위 : 명, %)

구분	연령대						전체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회	8	11.6	34	12.7	24	29.6	66	15.8
2~3회	7	10.1	38	14.2	13	16.0	58	13.9
4~5회	2	2.9	16	6.0	2	2.5	20	4.8
5회 이상	8	11.6	36	13.4	7	8.6	51	12.2
전혀 받지 않음	44	63.8	144	53.7	35	43.2	223	53.3
계	69	100.0	268	100.0	81	100.0	418	100.0

■ 교육받은 기관

- 교육받은 기관은 평생교육기관 83명(19.9%), 행정복지센터 개설 강좌 12명(2.9%), 구청 등 지자체 지원 개설 강좌 64명(15.3%), 복지관 18명(4.3%), 학교 74명(17.7%), 문화센터 35명(8.4%), 기타 132명(31.6%)로 다음 <표 3-21>과 같음

<표 3-21> 교육을 받은 기관의 종류 (단위 : 명, %)

구분	연령대						전체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평생교육기관	12	17.4	59	22.0	15	18.5	86	20.6
구청 등 지자체 지원	5	7.2	51	19.0	21	25.9	77	18.4
복지관	3	4.3	7	2.6	8	9.9	18	4.3
학교	23	33.3	46	17.2	8	9.9	77	18.4
문화센터	6	8.7	21	7.8	8	9.9	35	8.4
기타	20	29.0	84	31.3	21	25.9	125	29.9
계	69	100.0	268	100.0	81	100.0	418	100.0

■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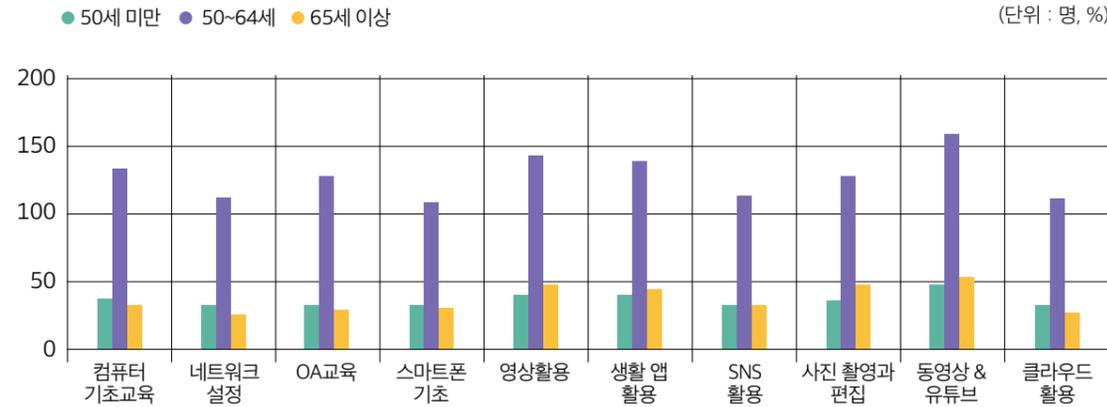
-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중선택하도록 하였는바, 응답 결과는 전체 유효 복수 응답 2,017명 중 동영상 & 유튜브 교육이 261명(12.9%)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영상 만들기 228명(11.3%), 생활에 필요한 앱 217명(10.8%), 사진 촬영과 편집 215명(10.7%), 컴퓨터 기초 200명(9.9%), OA 교육 187명(9.3%), SNS 교육 184명(9.1%), 스마트폰 기초 181명(9.0%), 클라우드 활용 175명(8.7%), 네트워크 설정 170명(8.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빈도분석 응답 결과는 다음 <표 3-22>와 같음

- 이것을 50세 미만, 50+ 세대(50-64),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연령대별로 재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복수 응답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50+ 세대는 동영상 & 유튜브 161명(12.7%), 영상 활용 140명(11.0%), 생활 앱 활용 138명(10.9%), 사진 촬영과 편집 132명(10.4%), 컴퓨터 기초교육 128명(10.1%), SNS 활용 114명(9.0%), 클라우드 활용 115명(9.0%), 네트워크 설정 111명(8.7%), 스마트폰 기초 108명 (8.5%) 순으로 조사되었음. 65세 이상 노인층은 동영상 & 유튜브 52명(13.5%), 영상 활용 48명(12.5%), 사진 촬영과 편집 47명 12.2%, 스마트폰 기초, 생활 앱 활용은 각 41명(10.6%), SNS 활용 35명(9.1%), 컴퓨터 기초교육 35명(9.1%), OA 교육 31명(8.1%), 클라우드 활용 28명(7.3%), 네트워크 설정 27명(7.0%) 순으로 조사되었음
- 교육수요 조사 결과는 현시대가 영상시대임을 반영하듯이 50+ 세대 노인층 모두 동영상 및 유튜브, 영상 활용 그리고 사진 촬영 수요가 많고, 다만 50+ 세대에서 스마트폰 기초에 대한 수요보다 SNS 활용, 클라우드 활용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스마트폰에 대해 웬만한 기초적인 부분은 숙지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실생활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노인층에서는 스마트폰 기초와 SNS 활용 수요가 전문적인 클라우드나 네트워크보다 높은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표 3-22> 필요한 교육 (다중선택) (단위 : 명, %)

구분	연령대						전체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컴퓨터 기초교육	37	10.2	128	10.1	35	9.1	200	9.9
네트워크 설정	32	8.9	111	8.7	27	7.0	170	8.4
OA 교육	32	8.9	124	9.8	31	8.1	187	9.3
스마트폰 기초	32	8.9	108	8.5	41	10.6	181	9.0
영상활용	40	11.1	140	11.0	48	12.5	228	11.3
생활 앱 활용	39	10.8	138	10.9	41	10.6	218	10.8
SNS 활용	33	9.1	114	9.0	35	9.1	182	9.0
사진 촬영과 편집	35	9.7	132	10.4	47	12.2	214	10.6
동영상 & 유튜브	48	13.3	161	12.7	52	13.5	261	12.9
클라우드 활용	33	9.1	115	9.0	28	7.3	176	8.7
계	361	100	1271	100	385	100	2,017	100.0

<그림 3-1> 연령대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육프로그램 빈도



■ 가장 신청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 다중선택이 아닌 단일선택방식으로 디지털 정보교육 중 가장 신청하고 싶은 교육은 전체 유효 응답자 418명 중 동영상 & 유튜브가 136명(32.5%), 생활에 필요한 앱 44명(10.5%), 스마트폰 기초 43명(10.3%), 영상 만들기 38명(9.1%), 클라우드 활용(7.9%), 사진 촬영과 편집(6.9%), SNS 교육(6.7%)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3-23>, <그림 3-2>와 같음. 이렇게 동영상 & 유튜브와 영상 만들기는 두 설문 항목 조사 결과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41.6%에 해당함

- 영상시대가 현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교육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동영상·사진 촬영과 편집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게 나온 점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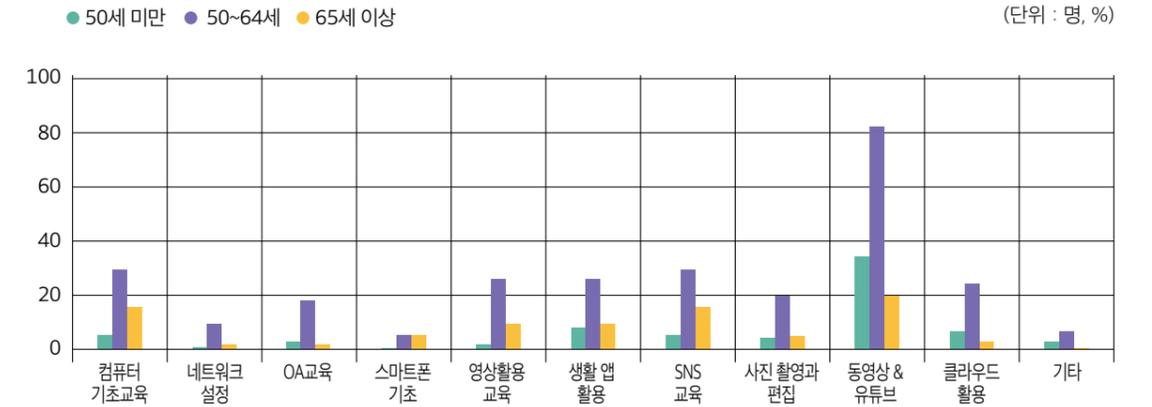
<표 3-22> 필요한 교육 (다중선택)

(단위 : 명, %)

구분	연령대						전체		χ ²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컴퓨터 기초교육	5	7.2	29	10.8	16	19.8	50	12.0	42.694***
네트워크 설정	0	0.0	11	4.1	1	1.2	12	2.9	
OA 교육	3	4.3	19	7.1	2	2.5	24	5.7	
스마트폰 기초	0	0.0	7	2.6	7	8.6	14	3.3	
영상활용	2	2.9	25	9.3	11	13.6	38	9.1	
생활 앱 활용	6	8.7	26	9.7	12	14.8	44	10.5	
SNS 활용	6	8.7	18	6.7	4	4.9	28	6.7	
사진 촬영과 편집	4	5.8	20	7.5	5	6.2	29	6.9	
동영상 & 유튜브	34	49.3	82	30.6	20	24.7	136	32.5	
클라우드 활용	6	8.7	24	9.0	3	3.7	33	7.9	
기타	3	4.3	7	2.6	0	0.0	10	2.4	
계	69	100	268	100	81	100	418	100.0	

* p < 0.1, ** p < 0.05, *** p < 0.01

<그림 3-2> 가장 신청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빈도



- 전 연령대에서 동영상 및 유튜브 프로그램이 가장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냄

- 50+ 세대는 동영상 & 유튜브 > 컴퓨터 기초교육 > 생활 앱 활용 > 영상 활용 > 클라우드 활용 > 사진 촬영과 편집 > OA 교육 > SNS 활용 순으로 조사되었음
- 65세 이상에서는 동영상 & 유튜브 > 컴퓨터 기초교육 > 생활 앱 활용 > 영상 활용 > 스마트폰 기초 > 사진 촬영과 편집 > SNS 활용 > 클라우드 활용 순으로 조사되었음
- 50+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교육 프로그램 수요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동영상 & 유튜브 > 컴퓨터 기초교육 > 생활 앱 활용 > 영상 활용 순으로 같지만, 5순위부터 약간의 차이가 보였음
- 즉 50+ 세대에서는 5순위로 클라우드 활용, 노인층에서는 스마트폰 기초 교육수요가 있고, 6순위는 사진 촬영과 편집으로 같지만, 다시 7순위에서 50+ 세대는 OA 교육, 노인층은 SNS 활용을 필요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시 말해 50+ 세대는 클라우드 활용이나 OA 교육 등에, 65세 이상 노인층에는 스마트폰을 위시한 SNS 활용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연령대별로 스마트폰 교육 중 가장 신청하고 싶은 강좌를 교차분석한 결과, χ²=42.694, P=.002로 연령대별로 신청하고 싶은 스마트폰 교육은 차이가 있다는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강좌 개설 시 교육 참여 의사

- 디지털 정보통신 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강좌가 개설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01명(48.1%), 보통이다는 172명(41.1%),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응답은 45명(10.8%)으로 다음 <표 3-24>와 같음

- 불참 의사를 밝힌 부정적 응답군은 전체 유효 응답자 중 10.8%에 불과하며 유보적 응답 비율(41.1%)을 포함하면 디지털 기기 교육강좌에 89.2%가 참여하겠다는 밝힌 만큼, 50+ 세대와 노인층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임

<표 3-24> 교육 참여 의사

(단위 : 명, %)

구분	연령대						전체	
	50세 미만		50~64세		65세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참여하지 않겠다	8	11.6	32	11.9	5	6.2	45	10.8
보통	30	43.5	110	41.0	32	39.5	172	41.1
적극 참여한다	31	44.9	126	47.0	44	54.3	201	48.1
합계	69	100.0	268	100.0	81	100.0	418	100.0

IV 디지털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1. 요약

-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나, 스마트폰의 활용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본 조사연구에서 세대별로 스마트폰 활용점수가 3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0세 미만의 경우 69명 중 65명(94.2%), 50~64세 268명 중 226명(84.3%), 65세 이상 81명 중 55명(67.9%)임
 -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3점 이상 즉 컴퓨터 활용을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노인층의 경우 5점으로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1점으로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음
- 본 조사연구에서 설문 응답자들의 외로움에 대한 정서적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나, 외로움으로 인한 불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음
 - 중요한 발견은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친구와 대화, 영화감상, 음악 듣기, 산책, 여행 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전체 유효 응답자 385명 중 74명(1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임
 - 그중 50+ 세대 응답자의 경우 246명 중 40명(16.3%)으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만큼 50+ 세대나 노인층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며
 - 디지털 정보격차를 벗어나고 싶다는 관심층은 전체 유효응답 자중 65.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나아가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다중선택)은, 전체 유효 복수응답자 2,017명 중 동영상 & 유튜브 교육이 260명(12.9%)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영상 만들기 228명(11.3%) > 생활에 필요한 앱 217명(10.8%) > 사진 촬영과 편집 215명(10.7%) > 컴퓨터 기초 200명(9.9%) > OA 교육 187명(9.3%) > SNS 교육 184명(9.1%) > 스마트폰 기초 181명(9.0%) > 클라우드 활용 175명(8.7%) > 네트워크 설정 170명(8.4%) 순으로 조사되었음. 가장 신청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동영상 및 유튜브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 세대는 동영상 & 유튜브 > 컴퓨터 기초교육 > 생활 앱 활용 > 영상 활용 > 클라우드 활용 > 사진 촬영과 편집 > OA 교육 > SNS 활용 순으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에서는 동영상 & 유튜브 > 컴퓨터 기초교육 > 생활 앱 활용 > 영상 활용 > 스마트폰 기초 > 사진 촬영과 편집 > SNS 활용 > 클라우드 활용 순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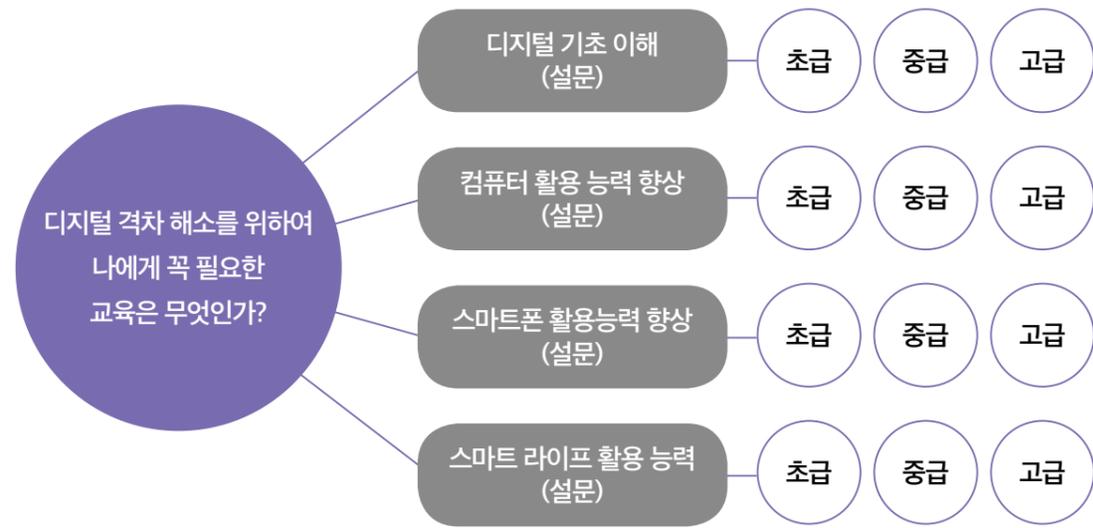
- 50+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교육 프로그램 수요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동영상 & 유튜브 > 컴퓨터 기초교육 > 생활 앱 활용 > 영상 활용 순으로 같지만, 5순위부터 약간의 차이가 보임
 - 즉 50+ 세대에서는 5순위로 클라우드 활용, 노인층에서는 스마트폰 기초 교육수요가 있고, 6순위는 사진 촬영과 편집으로 같지만, 다시 7순위에서 50+ 세대는 OA 교육, 노인층은 SNS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시 말해 50+ 세대는 클라우드 활용이나 OA 교육 등에, 65세 이상 노인층에는 스마트폰을 위시한 SNS 활용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50+세대와 65세 이상 세대가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소외를 느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하고 디지털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기꺼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50+세대와 65세 이상 세대들은 컴퓨터 활용능력보다는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능력 향상을 더 바라고 있음도 알 수가 있었음

2. 교육 프로그램 제안

- 더 많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활용능력을 4대 영역(디지털기초 이해, 컴퓨터 활용능력, 스마트폰 활용능력, 스마트 라이프 활용 능력)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설계함.
 - 무엇보다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광역시에서 50+ 세대와 65세 이상 세대들이 아날로그적 감성과 디지털 정보역량을 겸비하여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사회적 보람을 느끼고, 손자 세대와 소통을 통해 인생의 환희를 느끼는데 차별화된 맞춤형 디지털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지금까지의 광주광역시 정보화 교육 현황을 보면 시청 정보화 교육을 비롯하여 각 구청, 행정복지센터, KT, 복지관,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효령 노인복지타운에서 컴퓨터 기초, 한글2010,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앱,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는 있으나 개설과 동시에 마감되고 있어 50+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층 세대에 필요한 맞춤형 평생 교육으로는 미흡하게 진행되었음. 본인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활용능력의 4대 영역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고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영역을 선택하고, 설문을 통해서 자신의 디지털 정보역량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등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여 디지털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그림 4-1> 디지털 활용능력 4대 영역



<표 4-1> 맞춤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예시)

강좌	교육목표	교육강좌 예시	시간
디지털 기초 역량	초급 디지털 개념 이해 디지털 용어 이해	디지털, 아날로그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정보 중요성과 보호 방법 디지털 시민으로 100세인생 살아가기	5
	중급 4차산업혁명 이해 인터넷 연결 원리	50+ 세대 4차산업혁명 시대 살아남기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될까?	10
	고급 4차산업혁명 기술 인터넷 활용 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AR, VR, 3D프린터 등 유선,무선 인터넷 기술 (IPWi-Fi 등)	10
컴퓨터 역량향상	초급 PC 운영체제 이해와 프로그램 설치, 삭제 PC 하드웨어 이해	인터넷으로 정보 여행하기 어서와~ 컴퓨터는 처음이지!	5
	중급 워드,엑셀,파워포인트 작성 기초 및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하기	문서 작성이 이렇게 쉬울줄이야 컴퓨터와 네트워크, 프린터 연결하기	10
	고급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문서 작성 및 OA	문서작성에 날개달기 강의를 위한 스마트한 환경 구축하기	10

스마트폰 역량향상	초급	스마트폰 기본 설정 인터넷 정보 검색, 문자(사진 첨부)보내기	어서와~ 스마트폰은 처음이지! 스마트폰앱과 친구하기	5
	중급	앱 설치, 삭제하기 블로그, 카페, SNS	스마트폰 활용 능력 향상 SNS 계정으로 날개 달기	10
	고급	문서,자료 작성 클라우드 이용	Googol Docs, Polaris Office로 문서작성하기	10
스마트한 생활역량 향상	초급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한 생활	생활에 필수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하게 살아가기	5
	중급	스마트폰 금융거래 열차 예약,키오스크	열려라 스마트폰 금융교실 난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결제한다	10
	고급	스마트폰 영상편집, 스마트폰 강의하기	영상편집하고 유튜브 도전하기 ZOOM으로 초대하고 강의하기	10

- 본 연구에서 예시로 제안하는 맞춤형 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활용능력을 4대 영역으로 나누고 자신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설문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정보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초급, 중급, 고급)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이 핵심임

- 4대 영역별로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진행
- 초급과정은 지금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친숙하게 접하지 못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부터 하나씩 설명하여 디지털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강좌로 편성하였음
- 중급 과정은 초급 과정을 이수했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기초적인 지식과 활용은 할 수 있으나 아직은 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편성하였음
- 고급 과정은 중급과정을 이수했거나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지만 스마트한 생활에 더 응용하고 적용하는 영역까지 확장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하였음
- 더 나아가서 고급 과정을 수료하고 '디지털 전문강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으로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맞춤형 디지털 평생 교육에 대한 강의 영상은 유튜브TV를 개설하여 업로드 하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봄
-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피교육자를 위해서는 1:1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여 교육수요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며 교육 종료 후 피드백 활동으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참고문헌

- 강인애, 임병노, 박정영(2012). '스마트 러닝'의 개념화와 교수학습전략 탐색: 대학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4(2), 283-303.
- 강지은(2017).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선호도별 내용분석. *실천유아교육*, 22(1), 45-63.
- 고은이(2011). 스마트러닝 환경에서 교육용 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오상, 짙산산(2020).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중·한 비교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1), 149-173.
- 권치영, 김선웅, 임중철, 이홍직(2007).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149-173.
- 김민하, 안미라(2003).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확인을 위한 문항개발 및 능력평가. *교육정보미디어연구*, 9(1), 159-192.
- 김봉섭, 김정미(2009). 노년층의 정보격차 결정요인 연구 -정보기술 수용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93-222.
- 김정근, 최재원(2019). 50+ 세대의 취업상태와 신체·정신건강 만족도 및 사회참여 의향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36(2), 107-132.
- 김주찬, 민병익(200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115-142.
- 김현성(2019). 스마트시대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전략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4), 75-104.
- 남기민, 최화강(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65-390.
- 박마리아(2018). 중장년 학습자들의 스마트워커 교육 후 디지털역량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욱(2017). 50대 이상 신규 게이머 그룹 분석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8, 114-124.
- 서순복(2014). *정보통신법과 정책*. 광주: 조선대학교출판부.
- 서순복(2002). *지식정보사회와 전자행정*. 서울: 대왕사.
- 서순복(2002). 우체국 인터넷플라자를 활용한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 연구, *정보통신 학술연구과제*.
- 서순복(2000). 정보통신 중소기업 수출입 실태조사 및 수출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 학술연구과제*.
- 선태원, 김양이, 정태원(2020). 노인의 거주별 유형에 따른 생활 만족도와 고독감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거주노인과 노인복지주택 거주노인의 비교. *장기요양연구*, 8(1), 5-38.
- 이덕배, 안동미(2019). 50·60대 한국인의 일본식 외래어 사용실태 및 인식. *일본어교육*, 89, 25-41.
- 전현배, 최온정(2018). 정보격차 발생 요인 분석: 인터넷 이용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정책연구*, 25(3), 95-122.
- 정경자(2020).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 활동 참여의 구축 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5(1), 89-98.
- 조미정, 이재정, 이기영(2016). 50+세대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 부산복지개발원.
- 최성재, 장인협(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희정(2018). 전·후기 노인의 취업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노인복지연구*, 73(3), 113-141.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정보격차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인터넷백서*.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Kearney, M., Schuck, S., Burden, K., & Aubusson, P.(2012). Viewing mobile learning from a pedagogical perspective. *Research in Learning Technology*, 20, 1-17.

2

5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연구

(사)빛고을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박 상 하

공동연구원 | 강 철 수

CONTENTS

I. 서론	4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방법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46
1. 신중년 인생3모작	
2.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유형)	
3.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가치	
4. 선행연구 검토	
III.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54
1. 사회서비스 현황	
2.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3.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서비스 공급현황	
IV.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사례분석	60
1.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2. 돌봄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례	
V. 50+세대를 위한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66
1. 광주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전환수요조사결과 검토	
2. 5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4대영역 선정	
3. 신규창업 모형	
4. 조직전환 모형	
5. 임금근로자 취업모형	
6. 50+세대 일자리 교육 및 컨설팅	
VI. 결론 및 정책제언	81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85

요약

돌봄의 사회화와 포용적 복지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공공성 강화는 물론 신중년 세대들의 노후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생3모작 대안 모색함. 문재인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8)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17) 및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2020.3)을 결합한 50+세대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광주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함.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원리는 일반 시장경제와는 다른 공동체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목적의 경제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신중년 세대들의 노후 보람과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한 일자리창출에 적합함.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공공성 강화부문에서 '22년까지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돌봄경제(Care Economy)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광주형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모델개발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확보로 50+세대들이 참여하기가 용이한 개인사업자 중심의 돌봄분야 4개 영역인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을 선정하였음.

위 돌봄분야 4개영역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유도하여 신중년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신규창업모형, 조직전환모형, 임금근로자 취업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신중년 세대들의 일자리 및 창업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제안함.

5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 및 정책의지를 실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창업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적으로 제안함.

5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연구

■ 지역사회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에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부응한 사회적경제 모델개발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리추구와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왜곡 및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공급주체들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들의 시장화에 대한 공공성 강화

- 민간 영리기관들의 조직적인 영업활동과 시장왜곡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정립 및 서비스 공공성 확보 필요
-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형태인 사회적경제모델개발로 신중년 일자리창출

■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및 확산

- 신중년을 활용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또는 조직전환 유도 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및 경쟁력 강화, 50+세대의 노후 자존감 회복과 인생3모작 실현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신중년 기반구축계획에 따른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

- 통합지원 요구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17.8.8) 마련, 5060세대는 조기퇴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이 미흡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로 통합적 지원이 요구됨
- 신중년의 인생설계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 재취업, 창업 및 창직, 귀농 귀촌, 사회공헌 활동 순으로 나타남(김인엽 외 2인, 2017)

-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경쟁과 도덕적 해이 현상을 통제하는 공공성 강화와 기관 운영 및 종사자의 사명감 요구됨
 -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에 따른 일자리창출
 - 사회서비스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로서, 특히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해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
- 신중년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 돌봄 분야는 50+세대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이며 자존감 회복50+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 및 일자리 창출
- 기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유도 모델 개발**
- 50+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운영에 따른 창업 및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

■ 연구 필요성

-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발전 견인**
- 고용·복지 연계산업인 국내 사회서비스업은 전 산업 대비 사업 체수와 고용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비중과 고용의 질은 낮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통한 활성화 필요
 -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 경제의 상생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설립지원과 더불어 시장, 전략사업, 중간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유기적인 정책연계가 필요
- 제3섹터 영역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 정부부문(제1섹터)과 시장부문(제2섹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로 인식되는 제3섹터는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공동체영역과 비영리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비즈니스적 사회활동임
 - 제3섹터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공급정책에 의해 구조화되고 지역사회의 선순환구조를 견인하여,지역사회 공동체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문제 해결과 제3섹터 발전 도모
- 50+세대 및 지역자원 활용과 특성을 반영한 모델개발 필요**
- 사회적경제는 지방중심이어야 하고 차별화된 특성과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광주형 사회적경제모델 확산과 지역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수 있는 평생교육 차원의 모델발굴 요구 증대
 -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적경제 계획수립과 신중년 기반구축 계획에 따른 광주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상설적인 교육기구 설립 및 활성화 대책마련

2.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지역사회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인구고령화와 저 출산 사회에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부응한 사회적경제 모델개발
 - 지역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들의 시장화에 대한 공공성 강화**
- 민간 영리기관들의 조직적인 영업활동과 시장왜곡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정립 및 서비스 공공성 확보 필요
 -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형태인 사회적경제 모델개발로 신중년 일자리창출
-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및 확산**
- 신중년을 활용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또는 조직전환 유도 모델 개발
- 모델 확산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협력과 참여 유도**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 및 경쟁력 강화, 50+세대의 노후 자존감 회복과 인생3모작 실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50+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신 중년 인생3모작 프로그램
 -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관련 내용 조사
 - 사회서비스 이론 및 문헌자료 수집, 사회적경제 이론 및 문헌 연구
- 사례검토**
- 국내외 주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및 운영사례 검토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운영실태 및 조직전환과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사례검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신중년 인생3모작

■ 연구배경

- 신중년의 개념과 특성

- 신중년이란 개념은 문재인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8.8.)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로, 5060세대를 일컫음
- 인생 3모작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를 1모작, 중간에 명예 퇴직한 이후를 2모작으로 불렀는데 이를 더 세분화하여 65세 이후를 의미하며,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의 경로를 일컫음

<그림 2-1> 인생 3모작 개념도

출처 : 고용노동부(2017.8.8)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 신중년의 특성

- 5060세대는 2018년 10월 기준 14,502,882명, 전체 인구(51,821,881명)의 1/4에 해당하며, 생산가능인구(16~64세)의 1/3 수준임
- 현재 신중년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2018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1958년생이 만 60세에 해당하는 해로 퇴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신중년은 조기퇴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은 미흡하여 준비 없는 창업,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는 상황임
- 신중년의 활력 저하는 장차 생산가능인구 및 생산성 감소, 노후 빈곤으로 연결되어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높으며 5060세대는 정책분야별로 각기 다른 연령 분류(노인, 고령자 등)에 속해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나 통합적 지원이 부재함(최석현, 김재신, 2018)

- 신중년의 욕구

-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조사결과
현재 소득활동을 그만둔 이후 5060세대가 제2의 일에 대한 관심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약 70%,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2%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정경희 외, 2016)
제2의 일과 관련하여 5060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상용직) 37.1%, 창업/자영업 30.4%,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임시, 일용직) 20.9%, 귀농·귀촌 10.1%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
- 신중년의 제2인생 설계 요구
신중년의 제 2인생 설계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FGI 결과, 1) 재취업, 2) 창업 및 창직, 3) 귀농 및 귀촌, 4) 사회공헌 활동의 4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이 도출됨(김인엽, 김종욱, 송기민, 2017)

2. 사회적 돌봄과 사회서비스 (유형)

■ 사회적 돌봄

-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변화

- 돌봄의 사회화는 전통적 가족구조의 주요한 기능이었던 '돌봄'이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 출산 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화한 것으로 복지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 잡게 됨
- 19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돌봄 영역을 사회적 국가적 책임영역, 정책의 급여 형태가 현금과 서비스인지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 공급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여성이 주로 돌봄노동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결과에 차이가 있음

- 돌봄의 시장화 또는 민영화

- 저출산 고령화 이후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 시장에 민간 영리기관의 진입이 허용됨으로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급자간 경쟁이 심화됨

- 돌봄의 시장화 변화양상

돌봄 공급측면	돌봄 수요(이용자)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영리부분 진입허용 - 공급주체의 다변화 - 서비스간 경쟁유발 - 공공부문의 직접통제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공급자 선택권 확대 - 이용자 자율권 증대 및 욕구반영 - 이용자 선택범위 확대 - 서비스 품질 제고

■ Munday의 사회서비스 유형별 특징

- 공공서비스 모델

- 공공서비스모델은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자원 모두를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로서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여기에 해당됨

- 가족돌봄(가족주의) 모델

- 가족돌봄 모델은 국가나 시장 또는 제3섹터보다는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는 유형으로 복지국가가 발달되지 않은 남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됨

- 자산조사(시장주의) 모델

- 자산조사 모델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에 맡겨져, 소득 등 생계수단이 취약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임

- 보충주의 모델

- 보충주의 모델은 정부와 제3섹터 사이의 공동 파트너십에 기초한 모델로 유럽대륙 모델로 볼 수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됨

<표 2-1> 사회서비스 유형별 특징

구분	북유럽형 (공공서비스 모델)		대륙유럽형 (보충주의 모델)		앵글로색슨형 (자산조사·시장의존 모델)	남유럽형 (가족돌봄 모델)
	복지혼합	공공부문의 압도적 우위	공공부문 우위	비영리부문 우위	영리 부문 우위	가족 책임
제도의 구성	공여 원칙	보편주의	보편주의 + 보충주의	보충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재원 조달 중 조세 비중	매우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제도의 효과	지출 우선 대상	어린이	어린이	노인	노인	노인
	일·가정 양립 가능성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대표적 국가	사회서비스 계층화	낮음 (보편주의)	아동은 낮고 노인은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출처 : 정경희 외(2006), 임혁백 외(2007),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2018) 재인용

3.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

■ 사회적경제 개념 및 정의

-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 중심의 호혜와 연대의 경제로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논의가 있음

-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의는 학자의 관점과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공익추구 경제, 시장과 국가 간의 조직,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 사회적 자본의 창출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기 혁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체 등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임
- 결국,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모든 호혜적 집합적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음

<표 2-2>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구분	정의
유럽 공동체 (1989)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등을 포함
Defourny(1990)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노동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경제의 일부
OECD(1999)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
장원봉(2007)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 방식
신명호(2009)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혹은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 즉,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의 집합
장종익 외. (2013)	지역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하고, 타 지역과의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되 지역의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지향하며 민주적 참여, 호혜와 연대의 원리 및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경제

출처 :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2018) 재인용

■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운영원리

- 사회적경제는 주민 참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시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내발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음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개발의 목적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함
- 지역순환경제의 구축
 - 지역 기반의 생산-소비-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내발적 경제 및 사회적경제 부문 간 상호거래, 협력적 비즈니스를 중시
- 사회자본의 축적
 - 지역의 인구 규모, 주민의 지식, 능력, 경험 등이 신뢰로 결합되고, 다양한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마을과 지역의 역량 강화로 사회적 가치 추구
- 이윤 추구의 동기를 가진 경제가 시장경제인데 반해, 사회적경제는 비 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경제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회적배제자 및 취약계층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임
- 사회적경제 실현 구조는 사회적목적 하에 사회적 소유 형태가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여 사회적경제를 구현하는 형태
- 경제활동 영역 중 제1섹터를 국가의 공공영역이 담당하고 제2섹터는 시장의 민간영역이 담당한다면 제3섹터는 호혜경제라고도 부르는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림 2-2> 국가와 시장, 사회적경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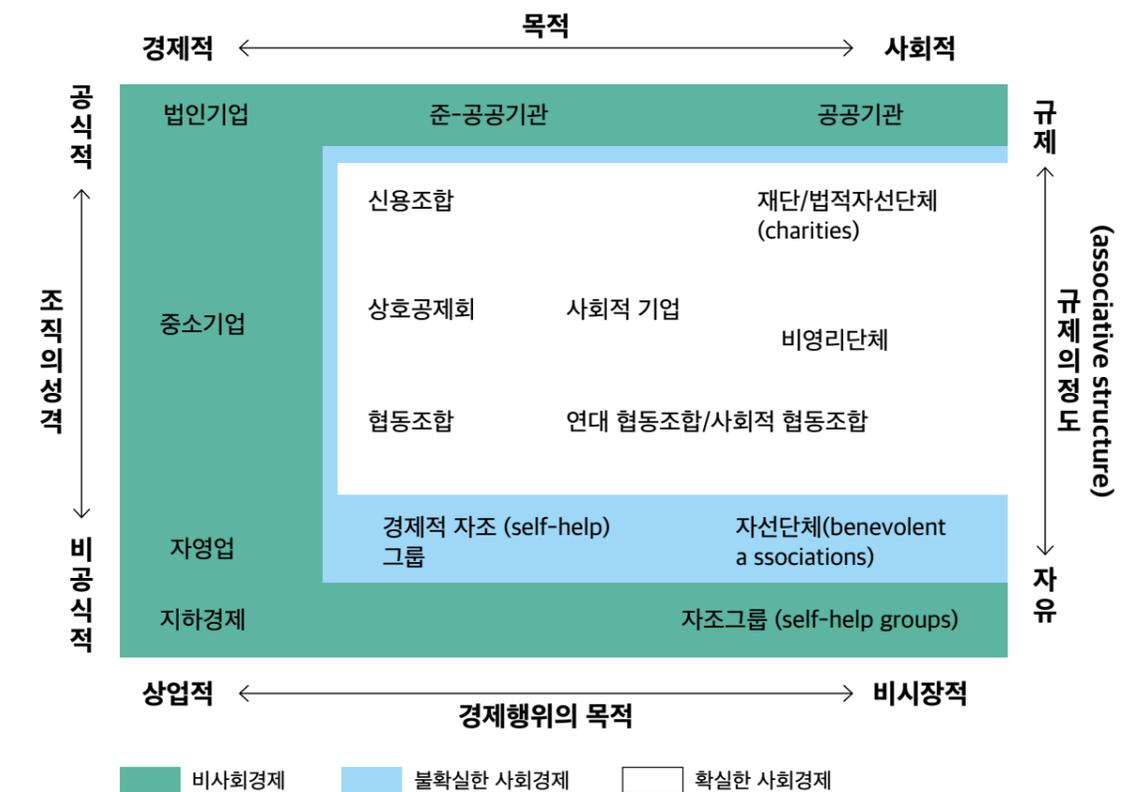


출처 : 박상하(2019).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 사회적경제의 구성

- Ninacs 와 Toye (2002)
 - 사회적경제 구성영역은 그림에서 맨 가운데 박스형태로 표시되며 영미권은 순수한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제3부문을 실제로 여김(재단이나 자선단체의 자발적 행위가 중요함을 의미) → 그림의 오른쪽 부분
 -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럽, 캐나다 또는 사회적경제를 중요시하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 신용조합, 상호공제회가 중요한 역할 수행 → 흰 부분의 왼쪽

<그림 2-3> 사회적경제의 구성



출처 : Ninacs & Toye(2002). 정태인(2015)에서 재인용.

- Pearce(2003)와 Brady(2003)
 - 사회적경제는 제1체제를 이윤지향적 민간상업시장 영역, 제2체제를 계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비상업적 계획경제 영역, 제3체제를 호혜와 자조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영역 중 사회적기업과 시장지향적 상업적 활동영역에 해당

4. 선행연구 검토

■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형태전환

- 경기개발연구원(2013)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기관을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해야한다고 명시함
- 경기도에서 현재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시설 재활치료기관은 개인사업자이거나 영세한 규모여서 협동조합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함

<표 2-3> 사회적경제 형태 전환 대상 사회서비스

바우처형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내용	사회적경제 전환대상
돌봄노동형	노인 종합 돌봄, 산모 신생아, 가사 간병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
교육재활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개인 및 민간기관

■ 사회적경제 전환방안

- 정지웅 외 연구(2016)에서 사회적경제 전환방안 제안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의 대안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제시함
- 사회서비스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무형적이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을 생산하고 취약계층의 고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주체를 찾아내는 방안 시급

■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안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변화의주된 양상은 제3섹터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에서의 시장원리 확대와 관련 이론 검토 및 실제 사례 분석
- 민영화, 시장화, 유사시장, 비영리 사회서비스 조직과 같은 민간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갖는 장단점 및 기대효과 검토

■ 사회서비스 발전전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정책연구보고서에서 돌봄 영역의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구조로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제안함
- 돌봄 사회적 기업 인센티브 구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및 건강한 서비스 공급자의 양성을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로 공동생산의 파트너로서 돌봄 사회적 기업을 고려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적 경제 전략

- 장소현·이용갑(2017)의 인천지역 사례 연구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개의 프로그램인 광역 자활기업 「소통과 나눔」의 '장애아동학습지원' 및 사회적 협동조합 「M 커뮤니티」의 '즐거운아침, 행복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

■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경제 전략

- 김학실(2016)은 한국사회서비스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함
- 사회적경제 역량이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

III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1. 사회서비스 현황

■ 전국 사회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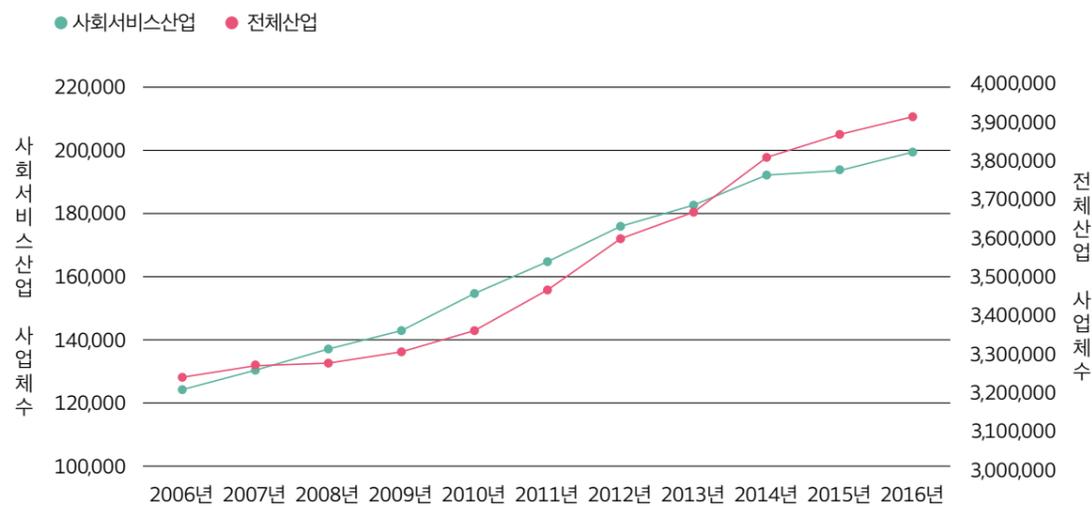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SSISC) 제정

- 사회서비스는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업종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음
- 이 분류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을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상담·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 서비스업,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업,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으로 구분

- 사회서비스산업의 사업체 규모

- 전체 산업 사업체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으로 3,950,192개소에 이르러 2006년 대비 22.4% 가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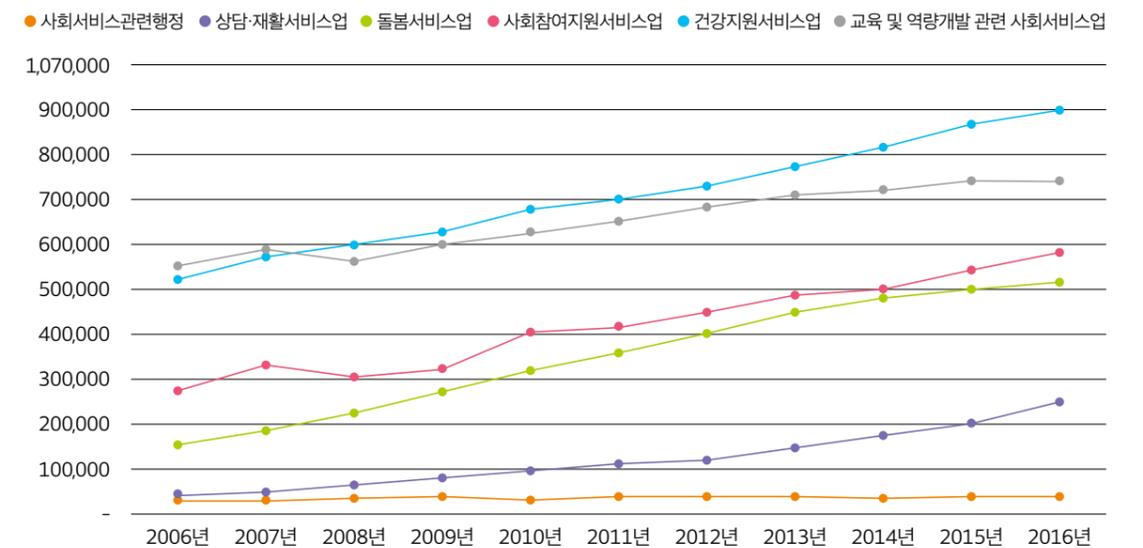
<그림 3-1> 사회서비스산업과 전체 산업의 사업체수 추이(2006~2016년)



출처 :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2018) 재인용

-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1,602,265명에서 3,026,045명으로 88.9%가 증가,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로 보면, 특히 상담·재활서비스업의 종사자수가 무려 558.8% 증가

<그림 3-2> 사회서비스산업의 대분류별 종사자수 추이 (2006~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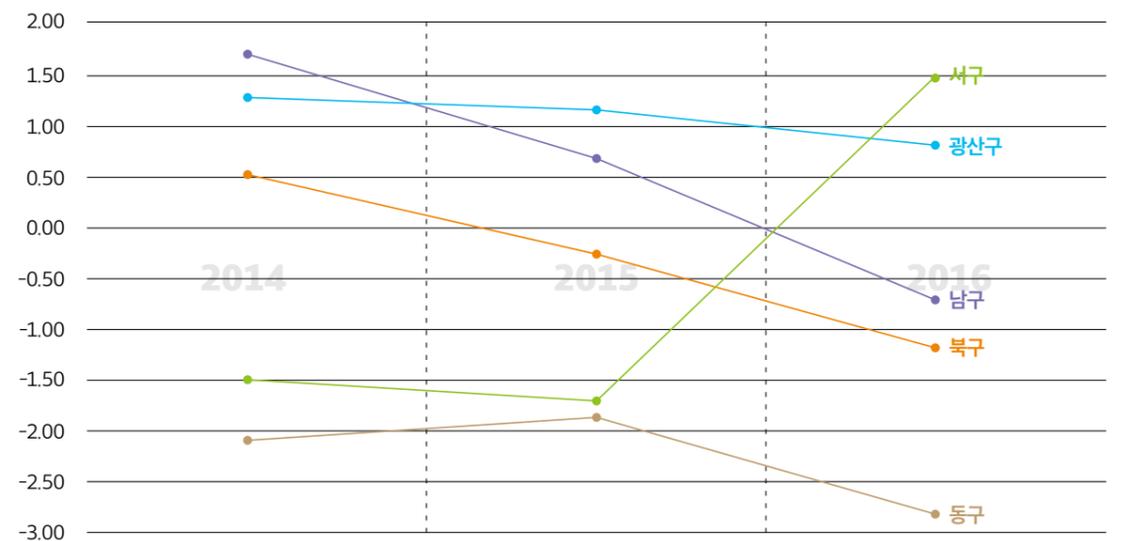
출처 :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2018) 재인용

■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지역여건 분석

- 광주광역시 인구변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수요파악(2018)

- 최근3년간 자치구별 인구증가율의 경우 서구(1.48%), 광산구(0.83%)는 증가추세이며, 남구(-0.7%), 북구(-1.13%), 특히 동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2.85%)임
- 서구(치평동, 상무2동, 금호동)·광산구(월계동, 수완동, 신창동)의 경우 신도심 조성에 따라 교통 및 교육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증가요인

<그림 3-3> 광주광역시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인구증가율 변화



출처 : 광주광역시(2018),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2018) 재인용

-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및 진단

-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및 진단에 따르면 광산구, 서구, 북구는 시장화우선지역, 남구는 시장화 유도지역, 동구는 시장화 내실 지역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자치구별 인구수와 사회서비스 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할 경우 광산구와 서구는 사회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A등급이며 북구와 남구는 B등급, 동구 C등급에 해당함

<표 3-1>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및 진단

구분	인구수	지역내 총생산구성비	지역특성 분석	사회서비스 수요(기준)			거점지역 분류
				소득수준	인구증가	수요욕구	
광산구	403,797	33.7%	강점 재정자립도가 5개 자치구중 가장 높고, 광주시 전체면적의 50%를 차지. 산단지역으로 신도심 지역 개발로 인구 유입 활성화 (첨단, 수완, 신창) 약점 도농복합도시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접근성 취약 (삼도동, 본량동, 임곡동, 동곡동)	A	B	A	시장화 우선지역
서구	305,108	24.8%	강점 행정·산업·교통등 핵심 도시기능 집중, 재정자립도가 광산구 다음으로 높음 (치평동, 풍암동) 약점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청년층 경제 활동 인구 감소 (서창동)	B	A	A	시장화 우선지역
북구	439,384	24.6%	강점 대학생 및 청년층 인구 증가 (일곡동, 용봉동) 약점 사회복지 수요 증가 및 취약한 경제구조 (석곡동)	B	B	B	시장화 우선지역
남구	217,305	8.7%	강점 주거 및 교육환경의 우수성에 대한 높은 인지도, 빛가람 혁신 도시에 인접하여 유입인구 증가 전망 (효덕동, 봉선동) 약점 제조업 취약으로 일자리 창출 한계, 도심과 외곽지역 간 높은 격차 (대촌동)	C	B	B	시장화 유도지역
동구	94,970	8.5%	강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도심 문화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학운동, 산수2동) 약점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유출 심화 및 인구 노령화, 제조업 등 지역 산업기반 취약 (지원1동, 서남동)	C	C	C	시장화 내실지역

출처 : 광주광역시(2018),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2018)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현황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자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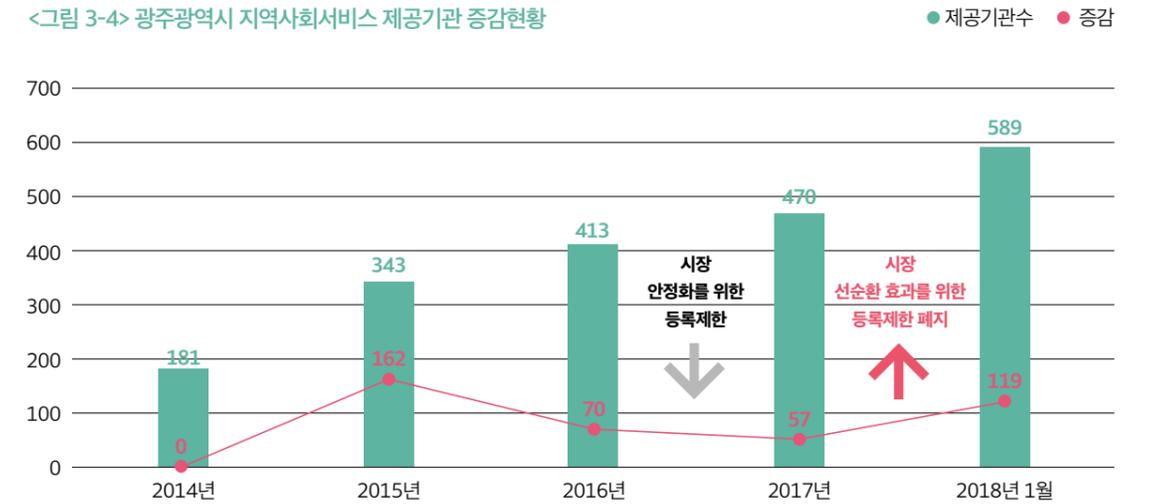
<표 3-2> 광주광역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총계	복지관/지역복지	지역자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보육	자원봉사	정신보건/노숙인
사회복지	2,368	19/10	11	34/464	161	24	323/24	1,258	8	30/2

출처 : 광주광역시(2018), 제3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분석

<그림 3-4>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증감현황



출처 : 2018년 1월 기준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황(내부자료)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확충전략 대비 공급기반 내실화 전략

- 정부의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인사업자 비중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간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상호 상충보다는 보완적 차원에서 서비스 확충전략이 요구됨

<표 3-3> 광주광역시 거점 지역분류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내실화 추진전략

거점지역 분류	자치구	지역구분	공급내실화 전략	
			기관유형	추진전략
시장화 우선지역	서구, 북구, 광산구	치평동, 풍암동, 일곡동, 용봉동, 첨단동, 수완동, 신창동	개인사업 영리법인	제공기관 및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제공기관간 품질고도화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제공기관간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품질향상 및 체감도 향상
시장화 유도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산수2동, 지원2동, 금호1동, 상무1동, 봉선동, 효덕동, 양산동, 운암동, 어룡동, 운남동, 하남동	상담센터	유동인구가 많고 시장화 우선지역에 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시장 내 부정행위 발생이 적고 전문성을 갖춘 아동재활사업군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규모 등 품질모니터링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시장화 내실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서남동, 서창동, 대촌동, 석곡동, 삼도동, 본량동, 임곡동, 동곡동	복지관 및 비영리법인	수요 및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도농복합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우 시장 내실화를 위해 비영리 기관의 진입 유도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복지관, 사단법인 등)

출처 : 광주복지재단(2018),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재인용(2018)

2.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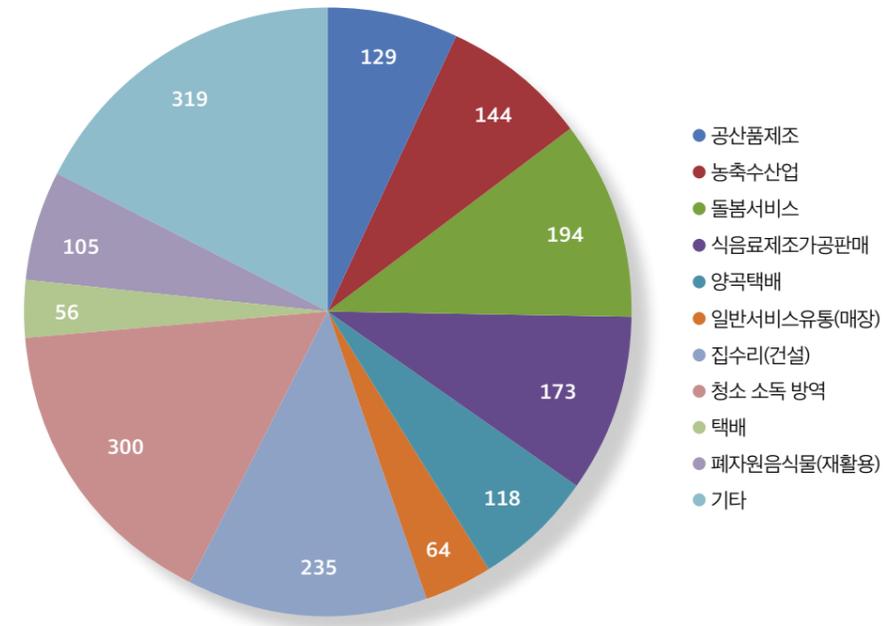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은 20,167개소이며, 인구 10만명 당 사회적경제 수는 38.9개소임
- 인구 10만명 당 사회적경제 기업은 강원도가 76.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 72.4개소, 광주광역시 68.1개소 순으로 많음
-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은 2010년 491개소에서 2017년 1,825개소로 증가함
 - 동 기간, 총 유급근로자 수는 2010년 13,590명에서 2017년 41,917명으로 증가
 - 인증사회적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2010년 7억 6,830만 원에서 2017년 19억 5,008만원으로 증가주광역시 68.1개소 순으로 많음
- 협동조합 현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2013년), 2차(2015년), 3차(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사업 운영율
 - 2016년 말 기준, 법인 등기된 9,547개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중 약 53.4%인 5,100개만이 사업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2015년 대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율의 높은 증가폭으로 인해, 전체 사업 운영율의 감소폭이 완화되어 약 -1.2%p 감소하는데 그침
 - 사업 운영 추정 협동조합의 고용창출
 - 총 취업자는 2015년 11,605명에서 2017년 27,129명으로 2.23배, 피고용인도 2015년 8,584명에서 2017년 22,093명으로 2.6배 증가하였으며 협동조합 당 취업자 수는 2015년 3.9명에서 2017년 5.3명으로, 협동조합 당 피고용인 수는 2015년 2.9명에서 4.3명으로 증가
- 자활기업 현황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209(11.9%)개소를 창업하였으며, 경기 166(9.4%)개소, 전남 166(9.4%)개소 순으로 많이 창업함. 광주는 82개소로 전국의 4.7%임
 - 자활기업의 창업 시 사업종류
 - 청소소독방역(300개소, 16.3%), 집수리(235개소, 12.8%), 돌봄서비스(194개소, 10.6%), 식음료 제조·가공판매(173개소, 9.4%), 농축수산업(144개소, 7.8%), 공산품제조(129개소, 7.0%), 양곡택배(118개소, 6.4%), 폐자원·음식물 재활용(105개소, 5.7%), 일반서비스유통(64개소, 3.5%), 택배(56개소, 3.0%), 기타(319개소, 17.4%)

(2016년 2월 기준)

<그림 3-5> 업종별 자활기업 수

출처 : 중앙자활센터(2016),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2016)에서 재인용



- 마을기업 현황

- 2016년 말 기준, 마을기업은 1,377개소가 설립·운영 중이며, 일자리 16,101개 창출, 연간 매출액 1,266억 원임(행정자치부) 지역별로 경기(166개), 전남(131개), 충남(109개) 순이며 마을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9,200만 원, 평균 고용인원은 11.7명임

3.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 2017년 7월 3일(2018년 3차 인증)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총 1,978개소로 이 중 일자리제공형이 1,345개소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은 175개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자리제공형이라도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들 사회적기업은 간병가사지원, 고용, 관광, 교육, 문화예술, 문화재, 보건, 보육, 사회복지, 산림보전 및 관리, 청소, 환경, 기타 등 대부분 사회서비스를 제공
- 실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2017)의 2016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69.6%에 해당

IV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및 사례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보고서

1.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현황

■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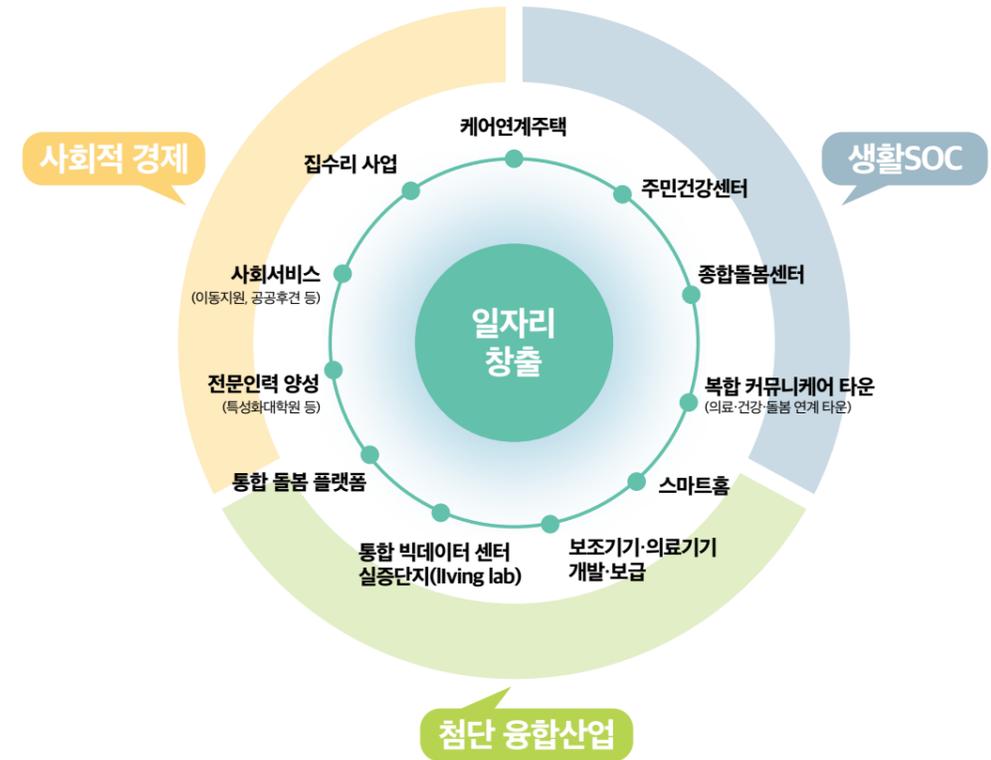
- 보건복지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40만명+a, '18~'22)
 - 고용유발계수는 쉰 산업 평균8.7명인데 비해 사회서비스 41명, 보건 16.7명('16년, 한국 은행)이며 고용 둔화 추세에도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8년 중 취업자(97.1만명)의 34%(32.9만명)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임('18.11)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34만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19.4~, 대구, 경남, 경기, 서울), 사회서비스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9)을 통해 서비스 공공성·질 제고 및 보육·돌봄·여가 분야 서비스에서 신규 일자리 9.5만명 창출
-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2년까지 4.2만명)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22년까지 일자리 4.2만명 창출

■ 돌봄경제 분야 일자리창출효과

-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분야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함 (국제노동연맹 ITUC, 2017). 실제로 미국 1291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 중국 2395만개 일자리 창출
- 동일한 투자금을 건설분야에 집중할 경우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이르지만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건설 분야보다 30%이상 일자리창출효과가 높다는 실증결과임

■ 돌봄경제의 파급효과

- 돌봄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개발로 첨단산업 육성지원도 가능
- 예컨대 거동 불편노인이 음성으로 냉난방기와 가전기기를 조절하는 스마트홈 보급부터 장애인을 위한 로봇 보조기구 연구개발까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짐
- 정부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할 계획임



2. 돌봄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례 (1) : 이탈리아 CADIAI

■ 연구배경

- CADIAI의 설립배경 및 현황
 - CADIAI는 1974년 해고된 유치원교사, 간호사, 간병인 등 여성 27여명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초기에는 노동조합 성격이 강했음
 - 카디아이(CADIAI)는 Cooperativo(협동), Assistenza(돌봄), Domiciliare(방문), Infermi(환자), Anziani(노인), Infanzia(어린이) 6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회적 협동조합
 - 카디아이(CADIAI)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볼로냐 지역 외에도 각 지역의 협동조합과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콜롬비아의 협동조합과 국제 프로젝트도 운영 A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아동(3개월~유치원), 장애인,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용 및 사업구조

- 40년 세월이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 고용자수가 1,471명, 이용자수가 약 3만명에 이르며, 총매출액은 423만 유로(약 570억)에 달함. 매출액 가운데 50.5%가 공공기관, 24.8%는 카디아이가 참여한 다른 기업들, 24.5%는 민간 고객(기업과 개인), 0.2%는 기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짐
- 81%의 직원이 여성이며, 12%는 외국인이며 평균 노동기간은 8.6년임, 사업금액은 4,600만 유로로 약 623억원이며 조합원은 968명으로 조합원 가입출자금은 1,800유로임. 가입출자금 5%는 현금 즉시 납부, 나머지는 매월 3%씩 월급여에서 공제

- CADIAI의 카라박(KARABAK)프로젝트

- 시장부가 부지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CADIAI와 소시에타 돌체는 교육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시(市)는 적은 예산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고, 조합원들은 일자리를, 주민들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민간 거버넌스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단초가 되는 중요한 사례
-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는 건축노동자협동조합 치페아(CIPEA)가 보육시설을 짓고 카디아이는 운영을 맡고, 급식노동자협동조합 캄스트(CAMST)는 급식을 제공하며, 보육 교육전문 사회적 협동조합인 소시에타 돌체(SocietaDolce) 등과 함께 카라박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0여개의 보육 원을 직접 건설, 운영하는 구조로 볼로냐 시가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협동조합들이 일정기간 운영한 후 소유권은 시로 이전되는 협동조합간 협력프로그램임

- 카디아이의 발전전략: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와 규모화

- 카라박컨소시엄(Consorzi Karabak) : 카라박프로젝트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9개컨소시엄이 탄생해, 10개 아동 돌봄시설이 건설되었음(5개는 카디아이에서 운영하고, 5개는 소시에타돌체에서 운영)
- 알데바란컨소시엄(Consorzio ALDEBARAN) : 2005년 볼로냐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4개(카디아이와ADA, Ancora Servizi, Societa Dolce)가 볼로냐 지방에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현재는 노인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주간 돌봄센터도 12개 운영
- 인레테컨소시엄(Consorzio IN RETE) : 2005년 사회적협동조합 5개(카디아이와 Proges, Coopselios, Cidas, Gulliver)와 금융기관 2개(COOPFOND와 CCFS; 모두 레가코프 소속)로 구성된 컨소시엄임. 이것은 레가코프에 소속된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함. 인레테는 카디아이, Gulliver와 함께 볼로냐에 있는 108개 침상규모의 요양원을 사들여 케도스컨소시엄에 운영을 맡기고 있음
- 케도스컨소시엄(Consorzio KEDOS) : 인레테컨소시엄에서 매입한 요양원의 운영을 맡은 케도스컨소시엄은 2011년에 3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A형 사회적협동조합인 카디아이와 Gulliver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B형 사회적협동조합인 Agriverde에서 정원관리를 함. 현재 노인요양원 두곳을 운영하는데, 카디아이에서 Parco del Navile를 운영하고, Gulliver에서 Parco della Graziosa를 운영함

- GE.RSA 프로젝트(Ge.RSA srl) : GE.RSA는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서 처음으로 공공(지자체와 보건의료기관)과 협동조합/민간기업이 함께 회사를 설립한 예 가운데 하나임(공동소유). 이는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약해 노인요양원 두 곳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은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코메테네트워크(Rete COMETE) : 이탈리아에서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는 5개 주(에밀리아로마냐와 마르체, 압루초, 베네토, 프리울리 베네치아 굴리아)에서 활동하는 10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서비스 네트워크임
- 리베스네트워크(Rete RIBES) : 사회적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모인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로, 협동조합과 컨소시엄, 일반기업, 결사체, Banca Prossima(Intesa Sanpaolo Group 소속 은행으로 비영리조직과만 거래)가 참여하고 있는데 Banca Prossima의 FITS 재단에서 제3섹터 혁신을 위해 추진함

- 서비스 품질 관리

- CADIAI는 ISO 9001 2008년 획득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에 필요한 UNI10881 등 국제, 유럽연합 기준을 적용한 품질 인증 취득
- 윤리 규범, 고객 개인정보 보호, 평등기회 보장책임, 예방 및 보호책임 중심 조직을 강조함
- 윤리 규범 확립, 고객 개인정보 보호, 평등기회 보장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공공 및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음

2. 돌봄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사례 (2)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 도우누리 탄생배경

- 지금의 도우누리는 민동세 대표의 열정과 노력에서 시작되었음. 그는 대학을 졸업하기전부터 성동-광진 지역 에서 지역운동가로서 활동하였으며, 93년 7월 성수공단지역 야학이나 문화패 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작은 단체들이 모여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인 성동민주단체협의회와 지역환경연구소 참여를 인연으로 선배 활동가들을 만나게 됨
- 성동주민의원은 지역환경연구소가 98년 통합한 결과 광진복지센터가 창설되었고, 주민의원은 광진복지센터의 부설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음
- 지역자활센터는 이듬해 2001년부터 새로 출범한 주민연대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도우누리가 태동하는 모태가 되었음

■ 도우누리 고용 및 시설규모

- 도우누리는 노동중심형 협동조합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18년 8월 말 기준 596명의 종사자들이 724명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도우누리는 직영사업장으로 늘푸른돌봄센터(노인·장애인 대상 재가 서비스제공), 광진아동 심리발달지원센터(아동 대상 이용시설 서비스 제공), 서울아가마지(산모 신생아 대상 재가 서비스 제공)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장으로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노인대상 생활시설서비스 제공), 병설 데이케어센터(노인대상 이용시설서비스 제공), 광진구립 능동 꿈맞이어린이집(미취학아동 대상 이용시설 서비스)을 운영하고 있음

- 조직도



자료 :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2020

- 이해 관계자

자료 :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2020



- 도우누리 비전 및 사명가치

사명과 핵심가치	활동목적
사명: 좋은돌봄으로 행복한 공동체 실현 핵심가치: 정직한 서비스, 건강한 노동, 협동, 연대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 좋은돌봄 실천과 이용자 옹호 -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

좋은돌봄 실천과 이용자 옹호
"상호이해와 소통, 마음까지 돌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직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HRD 투자!"



돌봄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제도개선 참여와 좋은돌봄 실천"

협동조합 운영원칙 실천
"지역활동 참여와 운영원칙 실천!"

V 50+세대를 위한 광주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1. 광주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전환 수요조사 결과

■ 수요조사 결과 요약

- 광주복지재단 협조로 설문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리기관으로 총 173개소 중 86개소가 응답하였음

-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의향

- 수요조사 응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은 총 86개 기관 중 54.7%인 47개 기관이 희망하고 있음
- 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총 53개 기관 중 50.9%인 27개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
- 또한 비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특히 개인 사업체는 51.2%인 22개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

- 전환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 전환을 희망하는 47개 기관 중 68.1%인 32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을 원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 12.8%(6개 기관), 협동조합 10.6%(5개 기관) 순임
- 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총 27개 기관 중 70.4%인 19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 18.5%(5개 기관), 협동조합 7.4%(2개 기관) 순임, 비 사회적경제 기업 중 개인사업체는 총 22개 기관 중 68.2%인 15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음

2. 5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4대 영역 선정

돌봄 4대영역	선정이유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전환희망 - 5060세대들의 일자리창출과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확보로 참여하기가 용이함 - 50+세대를 위한 노후자존감 회복 및 아동,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기회제공 -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계획(2020.3 보건복지부) 발표

정부의 기본 사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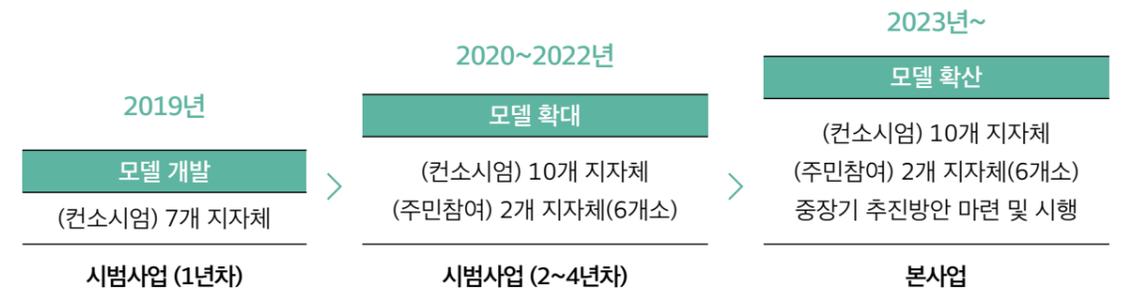
사회적경제조직 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연계·보완
- 사회적경제 특화 新사회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

지역공동체 주민참여형 조합을 통해 지역내 돌봄문제 해결

	유형	사업 예시
기존	지역 돌봄사업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다함께 돌봄' 등 범부처 사회서비스 주요 사업간 연계 추진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청·중·장년 1인가구, 맞벌이, 암환자 등 사각지대 신규 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신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주민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 돌봄 사업간 틈새 지원

※ 2019년 (광주 광산구) 저소득 밀집지역 공적서비스 외 사회적경제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선정



출처 :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 지원 사업 계획.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2017년말 광주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수는 총 470개소이며 사업군별로 아동역량이 155개소(33.0%)로 가장 많으며 아동재활 132개소(28.1%), 노인사회참여 79개소(16.8%) 순으로 나타남

<표 5-1>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군별 제공기관 및 예산현황

(기준 : '17.1월)

구분	사업군별 제공기관 및 예산현황					
	총계	① 아동역량	② 아동재활	③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④ 가족역량 강화	⑤ 신체건강
사업 수	23	5	3	4	4	7
제공기관수	470	155	132	79	73	31
비율(%)	(100)	(33.0)	(28.1)	(16.8)	(15.5)	(6.6)
예산(천원)	9,731,823	3,338,854	1,910,899	2,073,307	1,549,141	859,622
비율(%)	(100)	(34.3)	(19.6)	(21.3)	(15.9)	(8.8)

출처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전환, 전남대지역개발연구소 (2018)재인용

-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 현황

-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470개소중 비영리기관이 141개소(30.0%)이며 영리기관은 329개소(70.0%)로 개인사업자와 민간 영리사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
- 비영리기관 중에서도 사단법인 조직형태가 78개소(16.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학과 복지관이 각각 21개소(4.5%)로 나타남

- 장기요양기관

- 2018년 12월 말 기준, 광주지역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 현황을 보면, 전체 677개소 중 개인시설의 비중은 80.9%(548개소)임
-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총 582개소이며 개인시설은 503개소로 86.4%의 비중임. 급여종류에 따른 개인시설의 비중을 살펴보면 방문요양의 88.2%, 방문목욕의 90.9%, 방문간호의 64.3%,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69.2%, 복지용구의 86.6%는 개인 시설임

- 지역아동센터

- 2017년말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4,211개소이며 서울이 454개소(10.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광주 308개소(7.3%), 부산 212개소(5.0%), 대구 200(4.8%)순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 2015년 2,796개소(68.2%)에서 2017년 2,934개소(70.0%), 2018년 2,951개소(70.1%)로 증가하였음
- 반면,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인형태의 운영주체는 2015 ~ 2016년 10% 미만이며 2017년 904개소(21.6%) 2018년 896개소(21.3%)로 낮은 수준임

<표 5-2>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체	4,102 (100.0)	4,107 (100.0)	4,189 (100.0)	4,211 (100.0)	
개인	2,796 (68.2)	2,860 (69.6)	2,934 (70.0)	2,951 (70.1)	
법인	재단	300 (7.3)	300 (7.3)	904 (21.6)	896 (21.3)
	사단	249 (6.1)	241 (5.9)		
	사회복지	331 (8.1)	322 (7.8)		
일반단체	시민단체	67 (1.6)	68 (1.7)	290 (6.9)	288 (6.8)
	종교단체	272 (6.6)	183 (4.5)		
지자체	직영	-	19 (0.5)	17 (0.4)	25 (0.6)
	위탁	-	22 (0.5)	44 (1.1)	51 (1.2)
기타*	87 (2.1)	92 (2.2)	-	-	

* 표는 사회적경제, 학교법인, 주민자치위 등인데 2017년부터는 법인이나 일반단체에 포함
(출처 : 보건복지부(2018).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2013년 48,335명에서 2014년 53,870명, 2016년 63,32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 서비스 제공인력 또한 2013년 40,448명, 2014년 46,812명, 2016년 55,920명으로 증가추세임, 서비스 제공기관 수도 2013년 678개소, 2014년 723개소, 2016년 754개소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5-3> 광주광역시 장애인활동보조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청별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계
동구	3	5	8
서구	7	16	23
남구	4	11	15
북구	9	21	30
광산구	8	24	32
계	31	77	108

출처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2020)

3. 신규창업 모형

■ 모형설계의 기본방향

- 신중년 5060세대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아이템 발굴 지원
-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공동체정신과 사회공헌 인식 제고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및 소셜벤처경진대회와 연계운영 프로그램
-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신중년 5060세대 시니어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신설 운영
-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정책과 광역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및 광주시사회적경제센터와의 협업프로그램 연계운영

■ 신중년 맞춤형 설계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연계)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팀을 발굴하고 사회적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매년초 지역별로 30개팀 정도를 선발하여 1년간 창업팀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유도하는데 5060세대의 시니어창업에 효과적인 제도임
 -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과의 MOU를 통해 매년 시니어 창업팀으로 일정부분을 배정받아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창업생태계 구축이 가능
 - 광주지역 신중년 5060세대의 창업욕구 충족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달성과 사회적경제 확산 차원에서도 시너지효과가 큼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12년동안 성장한 것으로 육성사업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52.2%로 일반 창업 기업(28.5%)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성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육성사업 창업기업의 고용인원 성과
 - 2018년 기준 기업당 평균 5.0명, 창업 연차별로는 3년 차 5.6명, 5년 차 7.0명, 7년 차 7.8명으로 창업 연차에 따라 고용 인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육성사업 창업기업의 여성고용 비율은 58.0%, 20~30대 청년고용 비율은 63.2%, 정규직 비율은 88.5%로 나타남. 이는 일반기업의 여성고용 비율 44.1%, 청년고용 비율 42.5%, 정규직 비율 67.1% 보다 현저히 높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7.0%에서 2019년 7월 기준 37.9%로 지난 8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8년에 육성한 8기 창업기업 중 절반 가량인 46.6%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받았음

<표 5-4> 육성사업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현황

(단위 : %)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진입률	34.4	29.4	32.8	32.0	35.6	37.4	41.1	46.6

출처 : 고용노동부(2019).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자격은 창업준비팀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이며 초기창업팀은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 신청방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또는 지역별 중간지원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육성사업 창업팀 선정 절차



- 육성사업 창업팀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진입률	창업팀 당 최소 1천만원~최대5천만원까지 차등 지급 - 사업모델 개발비 : 상품화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경비 : 일반 운영비, 여비, 활동비
멘토링	상시 담임멘토링 및 전문 멘토링 제공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기본 교육 제공
지원연계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 지원
성장지원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공간, 멘토링 등 제공

-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연계)

- 소셜벤처 아이디어경연대회 목적은 창의적인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기업 모델 발굴 및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있음
- Social Venture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 참가 방법은 개인 혹은 팀으로 신청(팀 구성원은 10인 미만)가능하며 접수기간은 매년 5월 중순 ~ 7월 중순 사이에 시작되며 우수팀은 육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 선발함

- 모집부문 및 참가자격

모집부문 및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부문 만 13세~만 18세 청소년(대학생 제외) - 대학생 부문 국내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일반 부문 만 19세 이상 - 글로벌 부문 만 19세 이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아이템을 가진 자 또는 해외진출 전략을 가진 소셜비즈니스 기업
-------------	---

- 광주지역 신중년 5060세대들의 창업단계 이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프로그램 운영

- 소셜벤처 아이디어경연대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권역별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광주권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과 MOU를 통해 업무협력 모델 구축
- 역량강화지원으로는 전국대회 진출팀 대상 소셜미션과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참여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멘토링 실시 및 전국대회 진출팀 대상 문제해결형 워크숍을 실시한 멘토링 캠프 지원

- 추진일정

참가자 모집	예선심사	권역대회	역량강화	전국대회
온라인접수	서면심사 (5개 권역)	대면심사 (5개 권역)	맞춤형 멘토링 멘토링 캠프	종합심사 시상식
5~7월	7월	8월	8월	9월

- 시니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신규)

-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사업으로 시니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아카데미) 제안하고 추후 예산확보와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일반창업보다는 신중년 욕구 맞춤형으로 사회적경제 시니어창업을 통한 사회공헌과 노후의 인생 3모작 꿈을 실현하는 가장 초보단계의 프로그램임

- 창업동아리

목적	창업에 관심 있는 5060세대들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제품 제작 등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의 팀을 선발하여 팀별 수준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1개의 팀에 1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와 사업아이디어 정교화,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창업 캠프, 창업 세미나, 창업경진대회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참여 기회를 통해 창업(예비) 아이디어를 실현화할 수 있도록 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성이 발현되지 못한 창업동아리의 아이디어를 사업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수준별 창업지원으로 창업을 극대화하며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동아리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적 자질이 있는 예비 창업동아리를 선발 지원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원형이 나올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 창업동아리는 학습형(창업 아이템 지원: 교육, 멘토링 중심)과 도전형(사업화 중심 지원: 교육, 멘토링 및 아이템 개발비 중심)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음 - 선발 대상은 5060세대로서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하되 창업동아리 팀당 팀원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지원비: 창업동아리 활동비, 시제품제작비, 등 - 창업 멘토링: 창업 전문인력을 전담 멘토 1:1로 매칭 및 집중코칭 - 창업교육: 창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영역량 등 체계적 창업교육 실시 - 기타지원: 각종 창업관련 행사 우선추천, 소셜벤처경연대회 참가권 부여

- 창업캠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에 대한 편견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 창업캠프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참가해야 한다는 편견 타파
주요내용	<p>■ 다양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 신중년 5060세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통 2박3일을 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덤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덤 박스를 통해 팀부터 이용 대상까지 모든 것을 무작위로 결정 · 창업키워드를 조합하여 넓은 시각의 창업아이템 도출하고 모두가 아이템이 없는 동일 출발 선상에서 시작 - 창업자 &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 봄으로써 창업에 대한 넓은 시야 확보 · 창업자: 스스로가 창업자가 되어 투자자를 설득하여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 · 투자자: 스스로가 투자자가 되어 자신의 투자금을 매력적인 창업아이템에 투자 - 슈퍼 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완성도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멘토가 팀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멘투맨 창업 노하우 전수 · 소외시니어 사전 예방과 창업동기부여 및 참여 의욕 증진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을 비롯한 창의적 활동에 관심 있는 광주광역시 5060세대 누구나 - 창업동아리 활동중인 5060세대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운영 중인 5060세대 신중년 창업자 - 광주지역 창업 유관기관 및 관계자
지원대상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5060세대 신중년, 창업 관련 동아리 또는 신중년 창업자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필요한 창업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창업역량 강화 - 현장에서 새로운 창업아이템 창출과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매체 제작 능력 향상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력 향상 - 새로운 팀과 아이템 구성을 통해 현실적인 창업의 동기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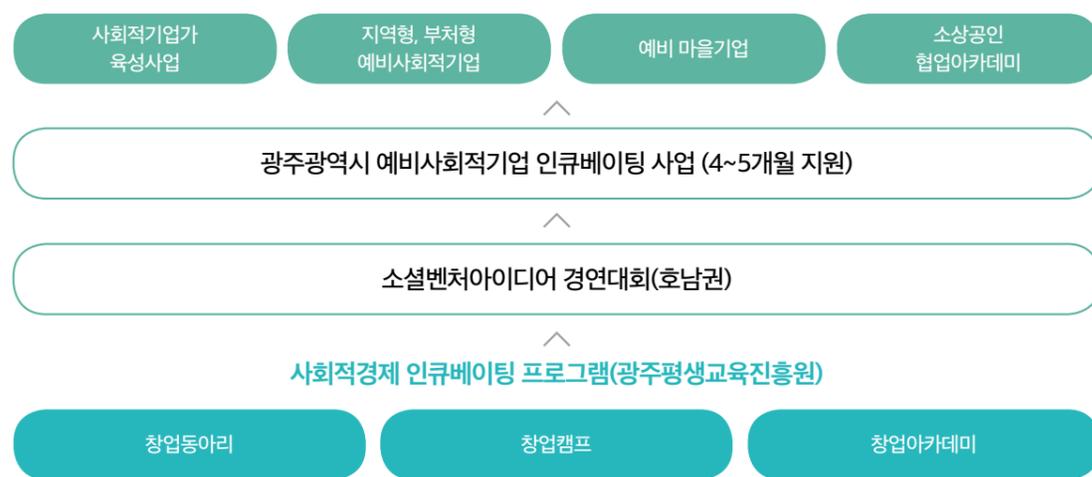
- 창업아카데미

목적	-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주민(중·장년)의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동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연계 - 창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 중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팀)를 발굴·선정하여, 소셜벤처경연대회 참가 및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창업을지원
주요내용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 및 사회적경제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론 및 창업사례,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교육
참가자격	사회적기업가소개, 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의 이해, 창업프로세스,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이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사례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도 2일~7일 정도 소요 * 80% 이상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교육목적과 기관에 따라 조정)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신청 시 가점 부여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2년 미만 기창업자 (중·장년 및 청년)

- 신규창업 모형 활용

-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신규창업은 기존 제도와 정책들을 연계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
- 신중년의 욕구를 반영하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노후 보람과 인생 3모작을 실현하고 창업의지가 높은 5060세대들의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 신규창업 모형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창업초기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신규사업을 통해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아카데미를 이수하고 이를 통해 소셜벤처대회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 광주형 신중년 사회적경제 신규창업 모형도



4. 조직전환 모형

■ 모형설계의 기본방향

- 광주광역시소재 돌봄분야 4대영역의 민간 개인사업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직전환
- 돌봄분야 4대영역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화 및 고용유지율 제고
- 사회적경제 조직전환을 통해 사회복지의 공공성강화 및 책무성과 지역성 담보
- 정부의 법인전환 및 개인사업자의 경쟁과 시장교란을 완화하는 정책연계 추진

■ 광주형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대상 민간 개인사업자 여건과 환경

-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시행

-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점차 경쟁력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퇴출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2019.12.12.)
- 장기요양기관을 시작으로 돌봄분야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등 복지국가의 책무성 실현으로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는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상함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처분 내용, 급여제공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 - 따라서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퇴출 예정
지정갱신제 도입 등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 - 지정 유효기간(6년) : 신규 진입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9.12.12)로부터 기산 -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갱신 결정 -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 돌봄분야 개인사업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및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한 조직전환

- 돌봄분야 4대영역의 현황분석에서 광주지역 민간 개인사업자 비율이 타 지역 보다 높고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서비스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돌봄분야 영역은 국가보조금을 활용한 국민적 사회서비스 확대가 목표임에도 개인사업자 및 대표자의 영리 추구행위로 부정수급이나 낮은 일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조직 전환 유도를 통해 공공성 강화

- 광주형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모형 대상 영역

- 광주광역시 돌봄분야의 민간개인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70~80%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교란 및 과다경쟁이 우려됨
- 따라서 5060세대를 위한 돌봄분야 광주형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모형의 집중대상은 개인사업자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모형임

<표 5-5>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대상 개인사업자 기관 현황

돌봄분야	민간 개인사업자 비율	조직형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7년1월 기준 광주시 전체 470개소중 329개소(70.0%)가 개인사업자임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장기요양기관	'18년12월말 기준 광주시 전체 677개소중 548개소(80.9%)가 개인사업자임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아동센터	'18년말 전국 4,211개소중 2,951개소 (70.1%)가 개인사업자임	협동조합 등	

■ 사회적기업 조직 전환 가능 요건

- 조직형태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부합할 것

- 법적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기업으로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단,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내용	판단 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 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다.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 준수
지역사회 공헌형	㉓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㉔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㉕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㉓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일 것 ㉕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 (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출처 : 고용노동부(2019). 사회적기업 운영지침

-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할 것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방법

- 개인사업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 개인사업자의 매출액과 회계장부 등을 양수도 절차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 변경
- 개인사업자의 사무실과 모든 자산 및 인력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

- 주식회사 등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 주식회사 및 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전환 동의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직전환

5. 임금근로자 취업모형

■ 모형설계의 기본방향

- 사회서비스 돌봄분야 고용흡수율은 광주전남지역이 가장 높고 신중년 일자리창출 제고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가치실현 목적과 신중년의 욕구 결합
- 돌봄분야 4대영역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결합한 합동 광주 시니어일자리박람회 개최
-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등 5개 구청 협의회와 공동으로 취업설명회 개최 정례화

■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들간 비교

- 5060세대들이 인생3모작으로 가장 선호하는 임금근로자 취업욕구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선호되는 이유
- 일반기업의 일자리욕구와 사회공헌 등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노후자존감 유지
-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부응한다는 자긍심고취

<표 5-6>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목적	이윤극대화 추구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문제해결
주체	주주 및 소유자	사업내용과 이해를 같이하는 다양한 집단
조직형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모든 기업형태,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운영관리	자본>노동	자본<노동
이윤배분	제약없음	제약있음
제약조건	사회적책임(CSR)	경제적 생존

출처 : 박상하(2019).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 신중년 5060세대의 임금근로자 취업방안

- 광주시니어일자리박람회 주관 개최

-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활동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5060세대들의 자존감 회복
-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광주시청 일자리담당부서 및 광주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공동 참여하여 박람회 계획 수립 시행
- 광주시 관내 5개 구청 일자리담당 부서 및 산하기관 공동참여 또는 일반 일자리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일자리공시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유도
-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같은 자원봉사 성격의 단기 임시적 일자리에도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상호 매칭하는 역할

-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적경제연합회 공동 취업설명회 개최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신중년 5060세대 및 취약계층 고용을 위해 워크넷이나 신문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구직자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사회적경제분야에서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임
- 광주권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와 5개자치구 홈페이지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정도여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구인구직난 해소와 일자리매치가 정기적이고 체계화된 취업설명회나 구인구직 시스템이 요구됨
-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과의 공동 취업설명회나 잡팩토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고령자취업정보센터 등의 설치 필요

- 고령자관련 유관기관과의 공동네트워크

- 고령자인재은행 및 신중년취업알선센터, 광주시일자리정보센터 등 광주광역시 관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정보 및 취업관련 기관들이 산재해 있으나 분절되고 임시적임
- 일자리관련 유관기관들이 연합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원스톱으로 매칭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활성화하여 고령자 취업에 대응하도록 함

6. 50+세대 일자리 교육 및 컨설팅

■ 신중년 일자리 및 창업교육

- 교육목적

- 신중년 인생 3모작을 꿈꾸며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 예비창업자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의 창업 준비과정을 단계별로 직접 수행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 및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교육목표

- 나만의 전문지식과 노하우,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의지 터득 및 비즈니스 모델과 이론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하는 비법을 학습
- 성공 창업을 보장하는 나만의 사업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자긍심 고취

- 교육과정 (예시)

STEP - 1	<p>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은 뭘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적성검사 - 창업아이템 선정 전략 - 아이디어 노트, SWOT Matrix
STEP - 2	<p>나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아이템 선정 리뷰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소개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도출
STEP - 3	<p>나만의 사업계획서 완성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리뷰 - 사업계획서 사례 및 작성법 - 1-Page 사업계획서
STEP - 4	<p>나, 창업한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 신중년 창업 지원정책 및 제도 - 창업단계별 실행계획

■ 신중년 일자리 컨설팅

- 신중년 5060세대의 욕구맞춤형 일자리상담 및 창업컨설팅

- 광주시 거주 신중년 5060세대들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상시 일자리상담 및 컨설팅으로 자존감 회복과 삶의 만족도 향상
- 일자리상담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 정기적인 초빙강좌 및 다양한 강의 개설

- 광주권역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연합 컨설팅 연계

-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및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등 5개 구청 협의회 센터 등과의 협업 컨설팅 연계
- 광주시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및 중간지원기관, 당사자 조직들간의 공동 컨설팅위원회등 상시적인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아이템 발굴 및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유도

<그림 5-1> 광주권역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연합 컨설팅 연계도



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광주형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모델적용 가능성

-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의지로 국내외적 여건과 환경조성

- 1970년대 이후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복지국가 위기 재편과 재정위기 극복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3섹터 활성화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등 부처마다 독립된 사회적경제 소관부처의 영역이 통합되지 못한점을 극복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기능부여와 체계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회에 입법 발의중임

- 광주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 2013년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제정 및 2014년 제1차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음
- 2017년 제2차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시행했으며 2020년 6월 제3차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돌봄분야 4대영역의 민간개인사업자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 돌봄분야 4대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경쟁 격화로 시장혼란 초래

-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급주체의 다원주의 정책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품질 저하
- 2017년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서도 사회서비스분야 민간 개인사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 63.2%에 달한다는 문제점에 따라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전환 유도정책이 본격화됨

- 민간 개인사업자의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 광주시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 '17년1월 기준 광주시 전체 470개소중 329개소(70.0%)가 개인사업자이며 장기요양기관은 '18년12월말 기준 광주시 전체 677개소 중 548개소(80.9%)가 개인사업자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8년말 전국 4,211개소중 2,951개소(70.1%)가 개인사업자임은 전국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아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시장교란이 우려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 하고 5060세대들의 임금근로자 취업 및 노후 자존감 회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전환 유도

■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 상담 및 창업컨설팅 체계 구축

- 신중년 5060세대들의 구인구직 활동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고령자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인생3모작 실현을 위한 일자리와 노후 복지를 결합한 로드맵 체계 마련
- 광주시청 일자리담당부서 및 광주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공동 참여하여 시니어일자리박람회 수립 시행

- 신중년 5060세대 미스매치해소를 위한 일자리상담 및 창업컨설팅

- 신중년 5060세대들의 욕구와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상시적인 일자리상담 및 컨설팅으로 창업의지와 아이템 발굴에 대한 자신감 부여
- 광주시사회적경제센터 등 중간지원기관 및 5개 구청별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들과의 공동 취업설명회와 일자리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신중년 5060세대들의 자존감 회복과 삶의 만족도 향상

2. 정책제언

■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광주시의 행·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 신중년 5060세대들의 일자리창출 및 창업육구에 부응한 행정지원

- 조직전환 이전에 인허가 받았던 사항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환이전까지 수행했던 사업실적 및 재무적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 광주시의 관계 부처간 업무협조 및 연합 계획수립

-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광주형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담당 부서와 돌봄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관련 부서 및 사회적경제 관련 담당부서가 연합하여 계획수립과 정기적인 협의 및 논의과정이 필요함

■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창업교육을 위한 기구신설

- 광주시의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의 정책의지를 실현할 시스템구축

- 임시적이고 분절된 창업 및 일자리교육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행프로그램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창업 및 일자리교육센터나 가칭 창업대학 등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 및 예산확보 필요
- 임금근로자 취업육구가 높다는 것은 창업의 위험부담을 회피하면서 노후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5060세대들이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이들의 수용하는 방안은 적극적인 구인구직 알선 시스템 구축과 일자리박람회 및 상시적인 취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임

- 일자리 및 창업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광주시의 행정이 주도하여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전문가 풀 구성
- 상시적인 구인구직상담 및 창업컨설팅이 전문가 풀을 통해 선 순환된 시스템구축

■ 신중년 5060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광주 평생교육의 영역중 신중년 인생3모작 기본계획 설계

- 매 3년 또는 5년 주기의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과 실행계획을 통해 평가와 성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신중년 인생3모작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방향설정 및 지역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공급자 중심의 평생교육이 아닌 5060세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특성의 평생교육 로드맵에 따라 실질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
- 신중년 5060세대 일자리 및 창업교육의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심리상담 및 재무설계 전문가 등 유사 인접 프로그램과의 융복합 설계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가치 공유체계 구축

- 사회적돌봄과 신중년 5060세대의 사회적목적 및 자아존중감 실현에 적합

- 4대 돌봄영역에서 신중년 5060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과 보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융복합(사회적 돌봄+사회적경제+평생교육) 기구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신중년 5060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대효과 작용

- 융복합(사회적 돌봄+사회적경제+평생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 칸막이 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TFT 또는 연합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융복합(사회적 돌봄+사회적경제+평생교육)요소 결합으로 유사성격의 가치와 성격을 공유한 영역들간의 정보와 교류의 플랫폼 기능 활성화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8.8).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918
- 광주광역시(2018). 2018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진단 보고서.
- 광주복지재단(2019).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및 처우 실태조사. 광주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 기획재정부(2020.8.13).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출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88&call_from=rsslink
- 김동기(201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17, 38-47.
- 김만희, 홍은선(2018).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모델 설계 및 추진방안. 일자리기획단 연구보고서.
- 김성기, 송용한, 김연아(2012).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연구. 경기복지재단.
- 김은하, 최기정(2017).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퇴출에 관한 실태분석. 사회보장정보원.
- 나주몽 외(2015). 광주지역 지역수요기반 맞춤형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광주광역시.
- 노대명, 이선우, 오단이, 김솔희, 김민지(2017).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라준영(2010).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벤처경영연구, 13(4), 129-161.
- 박상하(2012). 농어촌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 모델개발 연구. 전라남도.
- 박상하 외(2014).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1차 및 2차 보고서.
박상하(2018).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모델개발 연구보고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빛고을정책연구센터.
박상하(2018). 사회적경제의 정책과 실천.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세경, 신수민, 이정은, 김은정, 안상훈, 장원봉(2013).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세경, 하태정, 김보영, 김용득, 김은정, 이봉주, 이인재(2016).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종호, 이수혁, 전희경, 윤상혁, 이정민(2017).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사업 계획.
- 사회공공연구원(201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철선 외 10인(2017). 2017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정책보고서.
- 장민선(2017).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지웅, 이준우, 김연신, 신현석, 박종미, 지승훈, 김사랑, 김희연(2013).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연구. 정책연구, 12, 1-120.
- 조규형, 이영광(2018). 50+세대 일자리 조사 연구-사회서비스 일자리편. 서울시 50플러스재단.
- 한국노동연구원(2013~2018).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5).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 Ascoli, U., & Ranci, C. (2002). *The context of new social policies in Europe*. In Dilemmas of the Welfare Mix (pp. 1-24). Springer, Boston, MA.
- Campbell, J. P.(1977). "On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P. S. Goodman, J. M. Pennings, & Associates (Eds.), *New perspectiv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p 36-41). San Francisco: Jossey-bass.
- Dalton, D. R., Todor, W. E., Spendolini, M. J., Fielding, G. J. & Porter, L. W.(1980). Organization structure and performance: A critical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1), 49-54.
- Daly, M., & Lewis, J.(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Defourny, J.(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pp.13-40). Routledge.
- Defourny, J., & Nyssens, M.(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7, 3-27.
- Geissler, B., & Pfau-Effinger, B.(2005). Change in European care arrangements, In B. Pfau-Effinger, & B. Geissler (Eds.) *Care arrangements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 (pp. 3-21) Bristol: Policy Press.
- Pfau-Effinger, B., & Geissler, B. (2005). *Care arrangements and social integration in Europe*.
- Gilbert, N., & Terrell, P.(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 Germak, A. J. & Singh, K. K.(2010). Social entrepreneurship: Changing the way social workers do busines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4, 79-95.
- Hill, M., (2007). The Role of Communities in Care. In S. Balloch & M. Hill (Eds.) *Care, Community and Citizenship: Research and practice in a changing policy context* (pp. 5-20). The Policy Press.
- Laville, J. L., & Nyssens, M.(2000). Solidarity-based third sector organizations in the "proximity services" field: A European francophone perspective.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1(1), 67-84.

3

50+Well alone 평생학습 모델 연구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책임연구원 | 명혜영

공동연구원 | 신광용

CONTENTS

I. 연구계획

91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94

1. 관련 문헌 연구
 - 1.1 국내연구
 - 1.2 국외연구
2. 이론적 배경
 - 2.1 개인주의
 - 2.2 페미니즘

III. Well alone 평생학습 모델

103

1. '나혼자 산다' 모집단(母集團) 결성 및 운영
2. '나마너함' 인생학교 커리큘럼
 - 2.1 '나와 마주하고' 코스
 - 2.2 '너와 함께하는' 코스

IV. 결론

113

1. 정책적 함의
2. 활용방안

참고문헌

114

요약

50+ 세대는 지금까지의 삶을 결정해왔던 기성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는 대전환기에 놓인다. 가치관의 변화는 '관계'에 대한 재고로 이어지고, 이렇듯 50+ 시기에는 삶의 형태와 질이 달라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항목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는 매스컴의 관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뉴 버전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개인들의 반성과 성찰을 위한 지적 충전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는 적극적인 대처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에 따른 방법의 하나로 '잘, 혼자 사는(Well alone)'법을 평생학습 모델로 제시하였다. 당사자 연구라는 연구 의도에 맞춰 '50+여성 1인 가구'를 학습대상자로 선정,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습모델 구성에 참고하였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공지하고 인터뷰를 통해, 9명의 모집단(母集團)을 구성하였다. 6회에 걸친 심층 인터뷰 및 인문학 학습(자유주제 강연 및 영화인문학)을 실시하여 모집단들의 현상을 파악, 또 1인 가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Well alone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반추해 화해하고, 그다음으로 함께 미래를 상상해보는 학습 요법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어서 '나머함 인생학교'를 기획하고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과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을 회복·획득하고 '타인'을 인지하는 인문주의적 관점 함양으로 나와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표준이라 할 수 있는 1인 가구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요구(Needs)를 파악 가능하며, 건강한 개인의 형성으로 성숙한 공동체 구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평생학습 모델'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 교양 평생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0+ Well alone 평생학습 모델 연구

50+ 세대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는 인생의 혁명기이다. 현재 '1인 가구'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은 뉴 버전(New version)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른 기획으로 인문학을 접목한, '잘, 혼자 사는(Well alone)' 평생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I 연구계획

1. 연구의 필요성

■ 1인 가구 증가 현상

- 최대 원인은 이혼의 증가

- 2016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1인 가구는 더 이상 특이한 삶의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급격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1인 시대 도래를 예고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나 혼자 산다' 가구가 600만을 돌파했고,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것. 이 중 남자가 208만 1,000가구로 56.7%, 여자가 158만 1,000가구로 43.3%를 차지하였음 또한 이중에서 60%는 평생 1인 가구로 살겠다고 함
- 왜 1인 가구가 증가하는지, 왜 중장년층이나 고령자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상이 붕괴해 경제적으로 파탄 난 가정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가족의 결속력은 느슨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 1인 가구의 문제점

- 리스크 세 가지

- 50+세대의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리스크(Risk)는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는, 빈곤. 2인 이상 가구라면 일자리를 잃거나 장기입원을 할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어떻게든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인 가구는 불가능함
- 두 번째로 수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의 리스크. 1인 가구는 수발이 필요할 경우 의지할 수 있는 동거가족이 없음
-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 가령 독신자 10명 중 2명은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대화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심각함

■ 1인 가구의 해결책

- 앞서 언급한 세 가지 1인 가구 위기요인(risk) 중,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고립'의 문제를 연구범위로 한정하고자 함
- 50+세대의 고립은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 점을 엄중히 보고, 하루빨리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양한 인문학 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춘 인문사회학습과 이를 심화 할 수 있는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여야 함

2. 연구내용

■ 연구의 당위성

- 본 연구는 '광주형 50+ 당사자 연구'라는 명제 아래, 50+여성의 '나 혼자 산다' 라이프 스타일을 '웰 얼론(Well alone)'의 관점에서 구성된 평생학습 모델 연구임
- 연구 기획 주제의 '당사자' 관점은 기존의 '주최자 중심' 커리큘럼을 '수요자 중심' 커리큘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음. 또한, 본 기획연구의 특징은 연구자와 학습자가 모두 '당사자'라는 이중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임
- 본 연구는 연구자인 당사자가 학습자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고안된 학습모델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음

■ 인문학적 접근의 필요성

- 1인 가구의 증가는 타인에 대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결과인가 아니면 1인 가구의 증가가 그런 불신을 키우는 데 일조하는가, '혼자 살기'는 거절을 두려워하고 이별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방어 전략인가 아니면 '혼자 살기'는 삶의 최전선에 언제든지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생활방식인가?
- 성인들 사이에서 '혼자 살기'가 빠르게 번진 탓에 그들이 공동체와 집단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자기계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가, 1인 가구의 급증은 전통적 가족이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되는 과정인가 등. 대다수 사람은 혼자 산다는 생각만 해도 고립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함.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일이 고독과 불행과 질병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함. 하지만 혼자 사는 일의 결과가 늘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학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사람들이 휴대전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조밀하게 연결되는 지금, 혼자 살기는 과거와 다른 의미를 지니는가 등의 의문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따라서 50+ 1인 가구의 리스크 중 하나인 '고립'의 문제는 '관계'를 통해 풀어갈 수밖에 없음. 이를 위해 인문학이 필요함. 개인들에게 사회가 원하는 '나'에서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인문학을 접목한 평생학습은 성찰적 개인, 즉 '개인-되기'를 이루는 사고력과 상상력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음

3. 연구 방법

- 50+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은 '어떻게 혼자 살 것인가'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라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현상을 인문학을 접목해 풀고자,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하였음
 - ① 국내 및 국외의 관련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 ② 50+ 1인 가구 독신 여성을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 시에는 잠재적 독신까지 확대해 평생학습모델 모집단(母集團)을 구성하였음. 이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50+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집, 커리큘럼 편성에 반영하였음(별첨 참조)
 - ③ 세부적 계획으로는, 2020년 8월 전 2주 동안에는 주제 관련 문헌 분석, 8월 후 2주부터 11월까지 '문헌 추가 분석 및 대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9월부터 10월까지는 '국내 및 해외 사례 리서치 및 분석'을 진행하였음. 10월에는 평생학습모델을 연구하였음. 11월까지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적 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II 이론적 배경

1. 관련 문헌 연구

■ 국내연구

-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국내 문헌 5권을 정독·분석하였음. 그 결과, 50+세대의 인생 2막을 실행 중인 체험담을 수록한 텍스트와 당 세대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텍스트로 나누어짐
- 텍스트에서 발신하는 메시지는, “혼자가 대세다.”, “인생 2막은 ‘스스로’에서 온다.”, “같이 잘 살려면, 혼자 사는 경험이 중요하다.”, “고령자, 그들만의 세컨드 라이프” 등 다양했음. 이들의 메시지에는 대체로 ‘혼자’가 되는 점에 긍정적이며, 이러한 변화하는 공동체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도 유연함
- 그러나 ‘혼자’가 된 그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하나 같이 당사자의 주변과 사회적 역할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임.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그들만의 관점, 즉 당사자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텍스트 중에서도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홍현진, 강민수(2016). 청도: 오마이북)는 본 연구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텍스트에는 여성 1인 가구의 주역들이 만든 공동체 ‘그리다협동조합’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음. 특히 ‘어슬렁 세어링’ 활동은 1인 가구 여성들의 재능을 나누는 모임임
- 참고로 당 프로그램은 광주시민인문학 협동조합에서 8년간 지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재능자급자족 프로젝트’와 유사한 점이 많아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어슬렁 세어링’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건강 밥상 차리기’, ‘발레와 스트레칭’, ‘심리 치료’ 등의 재능을 나누었다고 밝히고 있음. 또 다른 소모임은 ‘어슬렁 동네친구’라는 활동임. 이 활동은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한 열린 프로그램임.
- 또한 ‘그리다 협동조합’에서 직영 중인 카페 ‘어슬렁 정거장’에서는 음료와 식사를 판매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제공 등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음. ‘집에 대한 모든 것’, ‘깨알 같은 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의 노트에는 카페를 방문한 이들이 남겨놓은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들이 댓글로 차곡차곡 쌓여있음.
- 이 부분 또한 광주시민인문학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인문학 카페’Novel(노블)의 운영방식과 유사함. 아울러 ‘어슬렁 정거장’에서는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와 건강한 1인 밥상도 맛볼 수 있음. 1인 가구 여성들의 택배도 대신 받아줌. ‘그리다협동조합’의 또 다른 축은 ‘생기랑마음달풀 연구소’인데, 여기서는 여성의 치유와 성장을 돕는 상담과 교육이 진행됨. 현재 조합원들은 30~40대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나, 50~60대 혼자 사는 여성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단 한 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그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그리다 협동조합’>의 활동은 본 연구에 크나큰 영감을 주었음. 본 연구와 같이 활동 회원의 구성이 ‘여성 1인 가구’인 점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매우 독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음

- 그러나 연령대가 주로 3, 40대로 1인 가구를 구성하게 된 사유가 대부분 ‘비혼’이었음. 그러나 본 연구의 모집단인 50+ 독신 여성들은 ‘비혼’뿐 아니라 ‘이혼’, ‘사별’, ‘졸혼 희망’ 등 다양한 사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모임의 목적이 사뭇 달랐음. 그렇기에 오히려 여러 방면에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포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국외연구

- 국외 서적으로, 후지모리 가츠히코의 『1인 가구 사회』는 일본의 1인 가구의 증가 현황 및 그에 따른 요인을 분석하고 있음.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 및 사회보장 기능을 자세히 다루고 있음. 특히 고령자들의 의료와 수발 문제 등은 지자체와 민간 발룬티어(volunteer)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엿보임
- 한편 에릭 클라인버그의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는 1인 가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의 <타임>지 선정, ‘우리의 삶을 바꾸는 10가지 생각’ NO.1을 차지한 명저로, 1인 가구 시대를 읽지 못하면 뒤쳐진 사회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1인 가구 성립과 사회적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이론적 배경

■ 개인주의

- 개인의 발견

- 서구 근대에 탄생한 ‘개인’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이어졌음. 운명의 주체, 권리의 주체, 계약의 주체, 판단과 실천의 주체인 개인은, 존엄성, 자율성, 프라이버시, 자기통제권 등 네 가지의 특성을 보임. 근대 서구의 사회계약론에서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는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인위적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음. 장 자크 루소는 개인이 공공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형태를 발견하고, 이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하지만, 종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 연합형태”야말로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할 근본 문제라 역설하였음.¹⁾
- 푸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에 대해 ‘자기’는 동일성과 ‘자기정체성’으로 분류하며, 자기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토대는 무엇인가? 영혼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관조 속에서 영혼은 정당한 행위와 정치 행동의 기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이란 신성한 요소를 관조하는 한 양심적인 정치가가 될 것”으로 보았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행위는 끊임없는 글쓰기 행위와 결합하였는데, 자기관 그것에 대해 쓸 무엇, 글쓰기 행위의 주제 혹은 대상(주체)이었음. 자기에 관해 쓰는 작업은 가장 오래된 서양의 전통 중 하나였음

1) 신환중(2001)『한국의 근대적 개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pp.6~34

- 특히 편지라는 양식은 매우 특별한 면을 보여주는데, 양심의 검토는 이 편지쓰기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일기 쓰기가 그 뒤를 따랐다고 함. 자기를 검토하는 데는 편지, 양심의 검토 외에도 수행 생활 또는 자기연마, 꿈의 해석 등이 있음. 세례(洗禮)는 인간을 굴레에서 해방하고, 고해성사는 세례 후의 삶 속에서 거듭되는 일상의 죄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함.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면서 고백의 종교임
- '자기 개시'로서 '자기인식'은 신 앞에 '자기포기'를 하는 뼈아픈, 그러나 기쁜 고통을 겪은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임. '고백'이라는 제도는 '자기포기'가 진리로 진정한 자신에게로 이르게 된다는 에피스테메(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인식의 무의식적 체계)였음. '자율성'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의사에 따라 자기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 외에 외부의 간섭과 개입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그리스 시대 개인은 '시민(citizen)'을 말하는 것이었음. 그들에게 시민이 된다는 것은 '폴리스(polis)'에서 공적인 삶을 영위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의미였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어야 했음.
- 그리스 시민에게 '사적인 것' 혹은 '사적영역'이라는 '폴리스'는 한정적인 공간을 벗어난 영역을 의미하였음. 즉, 가정에서의 경제활동이나 노예를 비롯한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가정으로서 시민의 지배는 모두 '사적인 것'에 속하였음. 그러나 시민 자체의 삶은 그것이 가정 혹은 경제문제에 관계된 것일지라도 전적으로 정치적인 삶을 위한 것이었기에 '공적인 것'이었음. '자기실현'의 발상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임
- 르네상스는 일반적으로 '휴머니즘'의 시대, 소위 '인간적인 것'이 재발견되는 시기였음. 이는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세계는 '근대'를 준비하게 되었고, '인간적인 것'이라는 관념과 제도가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임. 르네상스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중세 보편주의의 일률성과 통일성의 폭압 속에서 보편적 사회질서의 하나의 부분 기능만으로 폄하되어왔던 개인의 존재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모든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해방해 절대화하려는 지적 성향을 말함
- 또한, 구체적인 현실에서 개인의 독특한 능력의 자유로운 발휘와 개발을 통하여 개인뿐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을 구축하고 인간의 전체성을 확보하려는 지적 인식이라고 함. 이러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대정신과 세계관의 핵심은 자아의 각성, 개인 능력의 확신, 개성의 발휘 그리고 인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음
- 르네상스의 개인주의는 예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 르네상스의 인간들은 고대의 고전을 읽고 이를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관,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개체로서의 개인의 우월성과 인간의 전체성을 추구했음. 이 같은 '인간의 발견'으로 인해 다채롭고 개성적인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게 되고 개성이 발전하게 되었음
- 르네상스는 '인간의 발견'과 더불어 '세계의 발견'을 가져왔음. 휴머니즘은 수사와 도덕을 중시하는 인문학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지는 못했지만, 휴머니즘에 내포된 현세주의는 세계와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하였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심에 이끌려 많은 사람이 여행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리상의 발견을 초래하였음. 래리 시덴토프는 저서 '개인의 탄생'에서 인류 최고의 작품은 '개인의 발명'이라 말하고 있음

-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전 세계에 걸쳐 역사적 문화변동이라 할 수 있음. 사회학의 선구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이 변동을 '개인주의 예찬'이라고 표현했음. 뒤르켐에 따르면, 개인주의 예찬은 전통적인 농업 공동체에서 근대 산업도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겨났음
- 근대 산업도시에서 개인이 집단보다 귀중한 위치에 점차 올라섰고 급기야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임. 프랑스 학자로서 19세기 후반에 주요 저작을 집필한 뒤르켐은 밀턴 프리드먼, 아인 랜드, 마거릿 대처("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같은 사람들이 지지한 극단적인 경제적 개인주의의 출현을 예견하지는 못했고, 국가로부터 개인을 해방하는 것이 부를 늘리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공유하지도 않았음. 하지만 뒤르켐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지만은 않았음. 그는 근대사회의 노동 분업이 시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개인들은 가족·경제·국가와 같은 근대사회의 주요 제도의 지원을 받을 때만 '독자성'과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임

- 개인 중심

-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과 엘리자베스 벡-게른스하임(Elisabeth Beck-Gernsheim)은 이렇게 썼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모든 것이 개인 중심으로 돌아감. 개인주의 예찬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서구 전역으로 서서히 확산되었음. 그러나 개인주의 열풍이 서구를 넘어 세계 각지에 뚜렷한 영향을 끼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임. 여성의 지위 상승, 통신 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라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네 가지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개인이 활약하기에 좋은 여건을 창출하였음
- 혼자 나이 들기란 쉬운 일이 아님. 시간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사람에게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어려움, 즉 은퇴에 적응하고 질환과 싸우며 기력 감퇴를 견뎌내고 친구와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들이 특별한 고난으로 다가옴. 하지만 혼자 나이 든다는 것이 꼭 비참한 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가령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이 누군가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서비스 공급자들과 접촉이 더 많고, 인지능력이나 신체적 손상이 더 심하지도 않다는 결과가 나왔음
- 몇십 년 전부터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살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음. 독신인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만의 공간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문제는 '왜'냐는 것이다.

-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길까, 왜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에서 혼자 살기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을까, 왜 연령층을 망라하여 혼자 살고 싶은 욕구를 그토록 강하게 느끼는가, 우리가 '혼자 살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시작한 것은 '혼자 살기'가 어떤 목표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혼자 살면 현대인들이 청소년기부터 생애 마지막 날까지 신성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적 통제권, 자아실현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가 편하다고 할 수 있음. 혼자 살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가 있음. 혼자 살면 배우자의 필요와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음
- 디지털 미디어와 끝없이 팽창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인 지금, 혼자 살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고독을 되찾을 시간과 공간'임. '혼자 살기'는 우리의 자아 발견을 도와주고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을 도와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혼자 살기'야말로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대상인지도 모름
- 물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도울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을 공동체의 붕괴 또는 사회의 퇴보와 관련지으며 탄식하는 다수의 목소리는 그런 과제의 수행을 방해하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과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은 결코 같지 않다고 할 수 있음. 혼자 산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닐지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주위 사람들은 으레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류 역사를 통틀어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가 어려움. 모방할 사례도 없고 반면교사로 삼을 전례도 없음. 그래서 싱글톤(Singleton, 1인 가구) 사회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페미니즘

-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관

- 이제까지 여성들은 '위대한 여성'의 삶에 개입할 수 없었음. 그래서 남성이 해준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에게 교육이 허락된 것은 5천 년 인류 역사에서, 채 1백 년이 되지 않음.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한 명 이상'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대중 교육이 보급된 이후였음. 오늘날 여성들이 '나혜석'처럼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두려움으로 귀착되지 않기 위해서, 가부장제로부터 그녀를 탈환해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함
- 예나 지금이나, '똑똑한 여성'은 '특이한 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남성사회는 여성이 언어를 갖는 것,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음.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도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사회철학자 프란츠 파농이 간파했듯이, 흑인은 백인의 타자이며 동시에 흑인의 타자임. 여성의 타자 역시 여성이 아니라면, 이미 가부장제 사회가 아닐 것임. 정치학자 권혁범의 표현대로, "페미니즘의 '페'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후려치고 싶은 감정적 충동을 느끼는 남성들이나 나를 포함하여 자기 언어를 갖는 것에 대해 스스로 놀라는(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여성들 모두 가부장 사회의 산물임²⁾

2)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pp.31~179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 젠더(gender, 성별) 문제는 사적인 문제거나 하찮은 문제가 아님. 그래서 젠더 문제는 당연히 이해관계, 권력 관계의 충돌임. 남성 권력은 분명, 여성을 억압하는 '적'이라 할 수 있음. 어떤 의미에서 여성운동은 여성도 세상으로 나오겠다는('출세'하겠다는), 남성과 함께 사회를 책임지겠다는('권력'을 잡겠다는), 여성도 먹고살겠다는('파이'를 빼앗겠다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임.
- 하지만 여성들은 장애인이나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때와는 다르게, 자기 권리를 외치는 여성을 사회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여성에게는 언제나 권리보다 도리(의무)가 우선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자기주장을 할 때, "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접두어를 붙이고 있음. 각 분야에서 여성 1호가 된 여성이나 고위직에 오른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 "제가 바깥일을 하지만 애들 아침밥은 꼭 차려주고 나와요." 그리하여 출세도 못 했으면서 아침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주눅 들게 하고, '나쁜 여자'인 여성운동가의 이미지와 확실한 선을 긋는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편견은, 가부장제는 독자적인 모순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작동케 하는 구조 일부에 불과하며, 페미니즘은 중산층 여성들의 주장이라는 것임. 마오쩌둥, 마르크스 모두 중산층 지식인이었지만, 언제나 페미니스트만 중산층 지식인인 것이 시뮬거리가 됨. 이렇게 말하는 남성들도 대개는 중산층 부르주아 '지식인'인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운동가 중 일부가 지식인이라는 사실은 못 견뎌 함. 여성은 '어머니'이거나 '창녀'일 뿐, 지식인이나 중산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과학적' 여성운동은, 여성을 불쌍한 피해자로 재현하여 시혜자인 남성 주체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임(희생자화는 타자화의 가장 세련된 형태일 뿐임). 이런 사고의 밑바닥에는 남성만이 보편적 인간이며 절대 주체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당위가 깔려 있음. 어떤 면에서 부르주아 지식인 남성이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옹호하는 '좌파'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임
-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임.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력, 남성의 주체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 일임. 그러나 남성이 여성주의자가 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상대화해야 하는, 자신을 후원하는 '아버지'를 버려야 하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힘든 일임. 그야말로 존재의 전이라 할 수 있음

- '여성'이라는 위치로부터

- 유사 이래 모든 문학, 예술 작품의 지은이들은 '실연당한' 사람들이었음. "나는 그를 버렸도다!" 이런 작품은 없음. 예술 대부분은 "그가 나를 떠났구나."에서 시작됨.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에 관해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의 구조와 원인, 역사를 규명하려 함.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쪽은 언제나 '약자'이거나 더 사랑하는 사람임

- 때리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와 같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고, 맞는 사람을 탐구할 필요가 없음. 어렸을 적에는 대상이 사람이든 이데올로기든 조직이든, 더 헌신하는 사람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열정이 지나간 뒤의 황폐함에 관해서 관심이 더 많았음. 왜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인 사람이 상처받는지에 대해 분개했음. 이것이 그 어떤 이념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인생의 근원적인 불합리이고, 부정이라 생각되었음
-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음. 우리는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함. 사랑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크기, 깊이를 깨달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포함해 모든 대화는 최음제이며, 인생에서 깨달음만 한 오르가슴은 없음. 상처와 고통은 그 쾌락과 배움에 대해 지불하는 당연한 대가임. 사랑보다 더 진한 배움을 주는 것이 삶에 또 있을까, 사랑받는 사람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음. 사랑은 대상으로부터 유래-발생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내부의 힘이라 할 수 있음
- 사랑하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희열이며, 사랑을 갖고자 하는 권력임. 그래서 사랑 이후에 겪는 고통은 사랑할 때 행복의 일부인 것임.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임
- 상처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어가 자람. ‘쿨 앤 드라이(cool and dry)’, 건조하고 차가운 장소에서는 유기체가 발생하지 않음. 상처받은 마음이 사유의 기본조건임. 상처가 클수록 더 넓고 깊은 세상과 만날 수 있음. 돌에 부딪힌 물이 크고 작은 포말을 일으킬 때 우리는 비로소 물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며, 눈을 감고 돌아다니다가 벽에 닿으면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알게 됨. 이처럼 얇은 경계와의 만남에서 가능함. 그러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얇이란 가능하지 않음.
- 경계를 만났을 때, 가장 정확한 표지는 감정임.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이건 너무도 당연함. 감정은 정치의식의 동반자이기 때문임.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사유도 사랑도 없다는 것. 따라서 삶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 감정(emotion)의 라틴어 어원은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 나가는 것 즉 여행임. 근대의 발명품인 이성(理性)이 정적이고 따라서 위계적인 것이라면, 감정은 움직이는 것이고 세상과 대화하는 것임. 감정의 부재, ‘쿨’함은 지배규범과의 일치 속에서만 가능함.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느낌, 모든 즐거움, 모든 열정, 또는 생각의 근원이라고 생각함
- 인류는 남녀 간의 성차, 차별, 폭력이 생물학적인 것인지 사회 문화적 결과인지, 물질적 토대가 결정적 인지 언어(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지만, 진부한 논란임. 페미니즘 사상의 발달은 이미 이러한 이분법을 뛰어넘었고 ‘해결’했음. 남성과 여성 모두 가부장제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음. 인간의 삶은 구조에 대한 적용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추구들로 이루어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피해자 논쟁’을 떠나 성 평등을 추구하고 있음
- 문제의 원인(게다가, 가장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과 관계의 환원론에 빠지기 쉬움. 단일 원인을 주장하고 ‘주적을 규탄’하기보다는 문제가 전개되는 맥락에 대해 사유할 때, 문제가 구성되는 과정에 개입할 때, 자기 성장을 피하고자 타자를 찾는 일을 포기할 때, 다른 상상력을 가질 때, 저항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음. 어떠한 권력도 투명하게, 전일적으로 관철되지 않으며, 어떠한 전제 권력 아래서도 인간의 경험은 그 권력의 주조 방식을 넘어섬

- 성별, 계급, 지역, 나이 등 각 개인이 담지 한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position)와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을 박멸, 근절, ‘극복’(과거로 돌아가는 것,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하거나 피할 길은 없음. 만일 억압의 과거와 현재가 청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흑세무민이거나 인간과 사회를 역사적인 산물로 보지 못하는 관념론임. 자신의 결핍, 억압, 혼란을 ‘힘든 현실’로 수용할 때와 ‘주변적 현실’로 인식하는 것은 다름. 변화와 성장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고정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자원화’할 때 가능함. 어떻게 고통과 더불어 살아갈지, 어디에 서서 고통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따라 고통은 다르게 해석됨
- 고통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권태. 고통은 변형되어야 하되 잊혀서는 안 되고, 부정되어야 하되 지워져서는 안 됨. 죽음이라는 사실(fact)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파괴하지만, 죽음에 관한 생각(idea)은 우리를 구원하듯 마찬가지로,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성차별을 당하는 것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은 없음. 여성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음. 열등감과 분노, ‘불평불만’은 새로운 인식, 즉 실천의 출발이라고 생각함
- 거의 모든 인간의 고통은 ‘말’ 때문임. 즉 지배규범을 내면화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남성의 관점에서부터 여성, ‘나’를 정의하지 말고, 서구(이성애자, 비장애인, 부자, 서울 사람...)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정의하지 말자는 것. ‘진정한 우리’, ‘진정한 여성’은 없음. 여성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서구/남성의 대립 항으로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것임. - 여성주의는 서구/‘우리’,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서구/남성의 권력이라고 보는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사상임. 나의 존재를 누구/무엇과의 관계로부터 설명할 것인가, 그 범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면서 기존의 억압적인 삶의 양식을 재생산하지 않을 수 있을지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봄. 페미니즘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낱알이 새롭게 만드는 매력적인 참고문헌 중의 하나가 될 것임.

-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

- “동정이나 보호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독신 여성이 우리 시대의 참신하고 매력적인 여성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가 매력적인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계를 스스로 해결한다. 그녀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인격과 정신적 자질을 보석처럼 갈고 닦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점점 멋진 사람이 되어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녀는 꿈을 실현한다. 그녀는 남에게 기생하거나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며, 거지도 아니고 식객이나 게으름뱅이도 아니다. 그녀는 남에게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다.”
1962년 베스트셀러가 되어 돌풍을 일으킨 당시 40세의 헬렌 걸리 브라운의 『섹스 그리고 독신녀』라는 책은
- 책에 나오는 말. 배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보다 1년이나 먼저 세상에 나온 이 책은 수많은 페미니스트가 읽고 당황해하거나 충격을 받았음. 이 책이 가정·법정·정치·직장에서의 차별에서 비롯되는 성 불평등에 대항하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임. 그것은 다양한 시도와 성장과 기쁨의 시간을 누리지 못한 채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무조건 일찍 해서 가정생활을 하라는 사회적 압력에 짓눌린

여자들을 위해 쓴 책이었음

- 브라운은 여자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남편 없이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음. 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에 1인용 아파트는 새로운 도시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고 함. 독신 여성에게 자기만의 집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조적 위안을 주는 대단히 매력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임

- 여성의 늙음과 남성의 나이 들

- 미혼 여성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아줌마 같다.” 임. ‘아줌마’에 대한 혐오는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가 나이 든 여성에게 가하는 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여성의 나이 들에 대한 이 집요한 비난은,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여성에 대한 가장 쉬운 모욕이며 통제방식임. 한국 남성들은 여성이 그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음
-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woman)은 여성(female)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님. ‘아줌마’는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인 것처럼 계급과 나이, 외모,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진정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있음. 남성 중심사회는 여성 개인을 여성이라는 전체 집단의 속성에 귀속시키지만, 사실 남성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개념은 대단히 협소함. 정숙하고 젊고 예쁜 여성만이 여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음. 연령주의 사회일수록 나이 들과 늙음은 동의어로 간주됨. 그러나 나이 들과 늙음의 상관성은 성별에 따라 다름. 남성에게는 나이 들이 곧 늙음을 의미하지 않지만, 여성에게 나이 들과 늙음은 같은 말임. 대개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권력과 자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성은 그 반대임
-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분류된 타자임. 남성의 몸과 다르다는 것이 여성 억압의 근거가 되는 성차별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성은 언제나 몸으로 환원됨. 남성의 몸과 다르다는 것이 여성의 존재 ‘의의’ 방식이 되기 때문임. 가부장제 사회에서 몸의 경험을 근거로 형성되는 여성의 정체성은 남성 중심사회가 ‘부여’한 것이지만, 남성은 행위 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함. 그러므로 남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몸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몸의 기능과 상태(나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의해 형성됨

III Well alone 학습모델

1. ‘나 혼자 산다’ 모집단(母集團) 결성 및 운영

■ 50+여성 1인 가구 모집단 현황

연번	나이	사유	자녀 현황	학력	현 직업	비고 (평생학습 필요성)
A	50	졸혼	2	대학원 재학	유치원 교사	필요
B	58	이혼	1	대졸	개인사업자	〃
C	57	사별	2	대졸	무직	〃
D	54	이혼	2	대졸	학원 강사	〃
E	55	비혼	0	대졸	무직	〃
F	58	이혼	2	대학원 졸	프리랜서 강사	〃
G	54	졸혼	2	대학원 졸	대학 강사	〃
H	55	사별	1	대졸	수학 강사	〃
I	55	별거	2	대졸	회사원	〃

■ 모집단 활동 현황

총회	일시	참가자	프로그램	활동내용
총 6회	1차 10/3 (12~19시)	9명	1. 웰얼론클럽(WAC) 결성 인터뷰 2. 웰얼론클럽(WAC) 운영에 대해 3. 교양강좌 (강사 명혜영, 문학박사) · 인문학 강좌;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 영화 <해피해피 와이너리> 관람 및 주제 토론 · 인문학 강좌; <싱글턴에 대해> · 영화 <스틸 앨리스> 관람 및 토론 · 인문학 강좌;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 인문학 강좌; <50+여성의 섹슈얼리티>	1. 인터뷰질문지 작성 및 자기소개 - 50부터는 교양을 배워야 하는 시간에 공감하고 참여. 자기소개에 즈음해 내세울 것이 없는 점이 부끄럽다는 소수 의견. 그러나 연대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출석함. 2. 웰얼론클럽 운영에 대해 의견 교환 - 우선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인문학 강좌가 우선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3. 인문학 강연 ‘50+에는 바꿔라~’ - ‘바꿔라’ 등 자유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실행, 인적 물적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취향이나 습관, 인간관계까지 재고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봄.
	2차 10/10 (12~19시)			
	3차 10/17 (12~19시)			
	4차 10/31 (12~19시)			
	5차 11/07 (12~19시)			
	6차 11/13 (12~19시)			

■ 50+여성 모집단 인터뷰 내용

인터뷰이	나이	사유	인터뷰 내용 (요약)	기타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
A	50	졸혼	5년 전부터 섹스리스 상태. 교회 전도사인 홀시어머니와의 가치관 대립으로 2년 전 절연 선언. 효자를 자처하는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하여 불화가 잦았음. 현재 졸혼을 선언, 주거를 달래해 살고 있음. 졸혼의 시기는 딸을 결혼시킨 후라고 함. 현재 유치원 교사이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음	홀로서기를 위한 인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낌
B	58	이혼	이혼 5년 전부터 별거. 매사에 적극적이며 도전 정신이 강함. 이런 점이 남편의 자격지심의 원인으로 작용했음. 매사에 간섭과 통제가 심해져 이혼으로 이어졌음. 현재는 지금의 사업체와는 다른 쪽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학원 재학 중임	50 이전의 가치관을 확 바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을 추구함
C	57	사별	부부관계는 철저한 종속적 관계였음. 강한 시어머니와 충돌하지 않으려 근신하는 생활을 했음. 원래 병약한 의사 남편은 극도로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시어머니의 편애가 심했음. 그로 인해 일상의 고충을 토로하지 못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음. 이제라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함. 아직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열중하며 '자신'을 찾는 일에 시간을 보낼 계획	홀로서기를 위한 교양을 채울 인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낌
D	54	이혼	원래 예민한 성격으로 부부관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남편과 매사에 충돌했음. 더불어 독박육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이혼할 타이밍을 찾던 중 2년 전 실천에 옮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친절하지 못하고 몰아붙였던 점에 대해 후회함. 앞으로 여유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살고 싶음. 방과 후 교사로 활동 중이며, 같은 처지의 독신 여성들과 연대하고 싶음	'나'는 누구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싶음
E	55	비혼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가족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임. 2년 전 암 발병으로 치료차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됨. 독불장군과 같은 성격 탓에 사사건건 불협화음이 나, 신경성 위장이 생길 정도. 독신주의를 표방하며 30여 년을 심리상담사로 서울에서 활동해왔음. 그런 경력을 살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인생 나눔 교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음. 마음을 끄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으로, 독서 모임이나 헬스클럽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강 회복 차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음	가족 간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문학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싶음

인터뷰이	나이	사유	인터뷰 내용 (요약)	기타 (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
F	58	이혼	스토커에서 성폭행으로 이어져 임신하게 되면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결혼하게 됨. 가부장적인 남편과 주종관계였음. 경제권도 남편이 쥐고 있었으며, 이혼 후 위자료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함. 시부모, 아이들과는 화목했으나,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빼앗겨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으나 지금은 연락하고 지냄. 이혼을 계기로 대학원에 진학, 사회학을 전공하였음. 학문을 통해 여성들 억압의 고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음. 현재는 사업을 차려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으며 혼자 살기 25년째 실천 중이며, 평생 독신주의를 견지할 것임	자유롭게 여행하며, 50 이후에는 주변인과 나누며 살고 싶음
G	54	졸혼	3년 차 섹스리스. 가부장적인 남편과는 이견 조율이 힘들어 소통 단절. 결혼 전 외로움을 많이 탓 던 관계로 파트너를 원했으나,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됨. 남편은 매사에 완벽주의자인 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취미생활도 각자 하고 있으며, 아들 결혼을 계기로 졸혼을 계획 중에 있음. 꽃가게를 운영하며, 임업에 관련한 전공을 살려, 대학 강사로도 활동 중임	50이 넘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음
H	55	사별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에 골인함. 남편은 청년 시절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음. 그래서였는지 매우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음. 따라서 매 순간 남편을 우선해 배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신혼 초부터 운영해온 피아노 교습소와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음. 그러나 남편 사후 남편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사기당하는 손해를 보고부터 생계가 어려워졌음. 여자 혼자 힘으로 딸을 잘 키워 지금은 유일한 희망임. 앞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교양도 쌓아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싶음	교양을 쌓으며 자유롭게 여행하며 살고 싶음
I	55	별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남편은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람임. 평생 헌신적으로 수발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음. 이혼해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들어주지 않음. 다행히 평생 직장인으로 커리어를 쌓고, 저축도 해 노후는 걱정이 되지 않음. 남편이 퇴직하면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임	인문학하며, 여행도 하고, 자신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음

■ 모집단 활동 후의 결론

- 그녀들이 원하는 따로 또 같이

-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혼하니. 남편 멀쩡하겠다. 아들딸 똑똑하고 잘났겠다. 시댁하고 아무 문제없겠다. 너 같은 애가 이혼하면 대한민국에 이혼 안 할 사람 없겠다. 기가 막힌 말이다. 커다란 돌덩이가 박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심정을 아무도 몰라준다.”
- “50+ 이전에는 타인에게 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했고, 무슨 일이라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자만심에 차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힘겹게 느껴진다. 무장을 해제할 때가 된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자. 이제부터 진정한 나로 남은 반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 고립에 대한 불안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감정임. 다양한 형태의 소외와 사회의 파편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으며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현대문화의 특징임
- 언제까지나 혼자 살면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와줄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혼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도 연계를 맺기 힘들다는 점임.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과 존재감을 충분히 가질 노력을 기울여야 함. 고독은 혼자 체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도 있음. 사람들과 함께.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일임
- 모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따로 또 같이’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할 ‘수요자 중심’의 ‘나와 마주하고, 너와 함께하는’ 인생 학교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필요함

■ ‘나머니함 인생 학교’ 개설 기준

나이	학습대상	학습 인원	개설 학문 영역	학습 기간	기타
50+	1인 가구 여성	코스별 모집 인원 ; 15명	철학, 문학, 사학, 심리학, 여성학, 생물학, 사회학, 법학, 건축학, 생명공학, 서양미술학, 동양미술학 등	코스별 3개월(*2) = 총 6개월	수료증 수여

2. ‘나머니함’ 인생학교 커리큘럼

■ ‘나와 마주하고’ 코스 구성 배경

A. 낭만을 동경한 세대

- 50+ 세대는 로맨틱 러브(자유연애) 세대임. 70~80년대에 청춘을 구가했을 그녀들의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자유연애였음. 로맨틱 러브는, ‘너 아니면 안 돼!’, ‘첫눈에 반하다’ 등의 특성을 보이며 현재도 사용 중임. 본 강좌를 통해 근대 서구의 수입품인 ‘낭만’의 허와 실을 파헤쳐, 자신의 과거와 마주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B. 결혼만이 답

- 50+ 여성에게 결혼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수코스였음.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라든지 ‘여자 팔자 뒤웅박’이라는 정서가 일반적이었음. 여성들은 자유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해야만 당대 최고 의식 있는 여성으로 인정받았음. 본 강좌를 통해 남녀 결혼의 궁극적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선택을 반성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함.

C. 이름하여, ‘이혼혁명’

- 한때는 부부라는 틀 안에서 이성과 감정이 교차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사이이기에 ‘갈라서기’란 결코 쉬운 결론이 아니었음. 결혼 자체에 의문을 품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혼’은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짐. ‘이혼’을 마이너스적인 선택이 아닌 개인의 독립 및 자립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나의 선택을 응원하고자 함

D. 빈둥지증후군

- “처음에는 한가롭고 오붓한 혼자만의 시간이 행복했다. 집안일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게 좋았고, 미묘한 신경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맛보는 평화였다.” 혼자인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새로운 관계 증진에 나설 때임. ‘자유’와 ‘개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임

E.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바퀴벌레와 같이 서로 모여서 사는 것을 “외롭지 않아”하고 착각해버리는 빈곤성도 경계해야 함.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우실 텐데”하고 말하는 것도 진부하다고 할 수 있음. 혼자 살기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고독’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임

■ ‘나와 마주하고’ 코스

커리큘럼	과목(학문 분야)	개 요
A. 낭만을 동경한 세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 근현대미술 읽는 법(근현대미술)	‘너 아니면 안 돼!’의 연애 지상주의 낭만적 연애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근대 로맨틱 러브의 탄생과 시대적 변모에 대해 예술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열 번 찍어라’의 종말(문학, 여성학)	그들은 한때였다. 남성에게 손목을 붙들려 여관으로 끌려가는데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관한 택시운전사. 여성학을 통해 전 남친이 스토크 범죄자로 변해도 용서했던 시절을 논한다.
	의존주의 (여성학)	데이트 비용은 남자? 남자는 돈이 힘? 여성은 왜 의존적 존재가 되었는가? 의 근원을 탐색해 보는 강좌

B. 결혼만이 답	부부관계 역할극 (문학, 여성학)	언제나 보장되는 섹스!? 50+ 세대에게는 이해 불가인 '부부강간'이라는 어휘가 최근 사용되고 있다. 부부의 에로스와 섹슈얼리티의 사이를 짚어보고, 이를 역할극으로 재현해 본다.
	영화 속에 투영되는, '고부' (페미니즘영화)	갑자기 가족, 그리고 평생 '헌신'을 강요받는 결혼한 여성들의 삶을 '시대'에 초점을 맞춰, 고부 관계를 생각해보는 강좌.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를 영화로 선택한다. (예: <B급 며느리> 등등)
	근대의 발명품, '주부' (사회학, 문학)	여성의 역할에 대해 명명된 '주부'라는 직업. 독박 육아에 밥하고 빨래하는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는가? 성취감을 주는가? 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다.
C. 이름 하여, '이혼혁명'	갈라서기 신공 (여성학, 철학, 문학)	매사 남편의 맨스플레인(mansplain)과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길들었다. 아내의 판단은 언제나 무효였으며 발언권도 제한적이었다. 어떻게 하면 잘 갈라설 수 있는지, 여성의 타자적 삶에 초점을 맞춰 학습 및 토론한다.
	이성애 주의만이 정상? (문학)	남성은 여성보다 나이와 학벌, 경제력에서 우위여야 한다는 결혼관. '한 번이면 족하다'를 선언하고 '인내'로부터의 탈출. 이성애 주의의 가부장적 구조를 탐구해 본다.
	인맥의 재구성 (철학)	50에는 친구도 바뀌라. 이제는 장소가 아닌 정서를 근거한 인맥 형성이 대세다. 이혼이라는 혁명적인 관문을 통과한 자들끼리의 소통은 위로가 된다. 새로운 인맥 구성에 대해 검토해 본다.
D. 빈둥지증후군	열녀문이라도 세워 줄 겁니까? (여성학, 사학)	남편이 질병으로 죽자 남편을 앞세웠다는 비난을 피해, 일부러 시댁을 멀리했다는 인터뷰이. 그러나 그건 오래된 유교의 악습에서 비롯된 오해. 오히려 자유롭게 관계하고, 멋대로 살아갈 찬스!
	나와 화해하는 시간 (심리학)	모든 여성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집이 텅 비고, 생활환경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기분은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신호이다. 비로소 나와 화해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E.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가 새로운 표준 (철학, 문학)	고잉 싱글. 싱글턴이 표준인 시대. 50+ 비혼 독신 그녀들은 선각자였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1세대들의 그 시대의 삶과 사회적 변화를 고찰해본다. 아울러 현재를 사는 여성들의 탈 젠더적 삶과 미래의 사회적 위치를 상상해본다.
	외로운가? 고독한가? (철학, 문학)	외로움은 관계의 양이 아니다. 외로움은 숫자로 채워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진심 어린 관계에서, 성찰적 자아에서 외로움은 고독으로 치환할 수 있다.

■ '너와 함께하는' 코스 구성 배경

A. 개인-되기

- '개인'은 서구 근대의 발명품임. '개인'의 특성으로는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과 자기실현',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기통제'를 꼽음. 50+ 세대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대부분 '개인'을 획득하지 못한 채, 가족을 이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 기존의 종속적 개인이 아닌 '개인-되기'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육성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임.

B. 숨 쉬는 사람 책

- 숨 쉬는 사람 책은 내가 나와 마주 보며 그동안 몸 안에 갇혀있던 이야기거리를 사람 책이 되어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임.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 이웃에게 자신의 다양한 인생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 남보다 앞선 체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숨 쉬는 사람 책이 될 수 있음

C. 삶을 기획(디자인)하다.

- 50+ 이후의 삶은 더욱더 슬로우 하고 미니멀할 필요가 있음.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늠해 보는 학습 과정임. 미니멀 라이프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모든 집착과 중독을 끊고(斷, 끊을 단), 모든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리고(捨, 버릴 사), 거짓된 삶과 성공과 부의 망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면(離, 떠날 리), 우리는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음

D. 커플 어게인(couple again)

- "남편을 잃고 난 뒤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라는 질문은 다반사.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서 어느 때고 손을 흔들면 대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E. 죽음학

- ‘고독사’는 고령자들의 정서를 위협하고 있음. 사는 법과 죽는 법은 이어져 있음. 사람은 갑자기 고독사만을 맞이하지 않음. 일반적인 죽음과 싱글이 맞이할 ‘고독사’의 차이점이라면 죽는 순간을 지켜봐 줄 가족이 없다는 정도일 것임. 죽음은 곧 삶. 인체 시스템을 이해하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학습해보고자 함

F. 미래학

- 우리는 흔히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내일은 이미 현재에 존재하지만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현재이기도 함. 그래서 니체는 현재에도 얼마든지 미래 속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함. 50+여성 1인 가구로서, 가슴 속에 미래를 바꾸어 보겠다는,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의 촛불을 뜨겁게 밝힐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강좌

■ ‘너와 함께하는’ 코스

커리큘럼	과목(학문 분야)	개요
A. 개인-되기	법률에 비취본 ‘개인’ (법학, 사회학)	과거가 잉태한 ‘나 자신’을 성찰해보며, “독립적인 영혼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거듭나는 강좌를 편성한다. 현행 헌법과 법률 분야를 탐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	인간의 근본적 물음, ‘나’는 누구인가? ‘자율성’과 ‘자기실현’이란 각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의사에 따라 자기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 외에 외부의 간섭과 개입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학습한다.
	‘아무나 작가’ (문학)	‘자기 개시’의 실천으로써, 각 장르에 걸쳐 글쓰기를 실시한다. 소설, 시, 에세이 등을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고 마주하며, 재고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간의 독립을 획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독교 사상을 통해 현대를 가늠하다. (종교학, 철학)	근대는 내가 나에게 규칙과 규범을 부여하고, 그것을 스스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개인적 자율의 시대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입법’, ‘자기통제’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사상을 비교 대상으로 학습한다.

B. 숨 쉬는 사람 책	마이스토리 自己史 (문학)	지금껏 우리는 ‘히스토리’를 주입받았다. 나의 관심사도 아닌, 나의 취향과는 관련도 없는 그들의 일대기를 읽고 동경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제는 ‘개인의 일대기인 마이스토리, 즉 나의 인생을 스토리텔링 해보고 액자화한다. 이를 가족 또는 타자와 공유하며 공감대를 만든다.
	당사자 관점 (철학, 문학)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오로지 ‘나’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한 사회 역사적 측면을 주제로 논지를 표고, 발표하는 학습 방법을 택한다.
C. 삶을 기획 (디자인)하다.	슬슬 교양 공부나 시작해볼까! (문학, 건축학, 철학)	바쁘게 살아 온 과거와는 아뉘!!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로 대전환. ‘나만의 와인바’, ‘밤 깊은 카페에서’ 등 천천히. 문학과 철학이 알려주는 감성논리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기획해본다.
	단사리(斷捨離) - ‘끊고, 버리고, 멀어지자!’ (철학)	50+에서는 ‘바뀌라’를 주제로, 단사리(斷捨離)를 실천해 공간을 미니멀하게. 또한, 관계 역시 리셋, 새로운 취미 동아리 만들기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한다. 집안 정리 등 물리적인 부분부터 실천하여, 새로운 친구 사귀기까지의 감성적 영역으로 확대 실천
	펫(pet)의 A,B,C (사회학)	애완동물은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애완동물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독감을 해소한다. 더 나아가 배려심 등이 자라나는 등 정조(情調) 교육의 효과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식물도 반려 식물이라 칭하며,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혼자 사는 이들은 펫문화에 관심이 깊다.
D. 커플 어게인 (couple again)	나의 섹슈얼리티 - 싱글을 기본으로, 가끔은 함께 (문학, 여성학)	“남편을 잃고 난 뒤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재혼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별이건 이혼이건 돌아온 싱글들은 새롭게 커플을 만든다는 게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다. 주변의 돌싱 또는 사별한 솔로들이 법적인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이해가 간다. 그렇더라도 노년을 함께 할 파트너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 따라서 ‘싱글’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은 함께’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밥친구&술친구 (사회학)	이왕 같이 먹을 거라면 이야기가 재미있는 마음 편한 사람들 5~6명과 식탁을 함께하는 게 좋다. 숫자가 많으면 화제가 돌로 나뉜다. 이성이 끼면 식탁의 화제가 변한다. 동성끼리가 편하다. 체험 학습으로 진행한다.

E. 죽음학	고립과 죽음	50+ 이후에는 사실상 '고령자'의 삶을 상상해봐야 한다. 기실 우리는 '고령자의 고독사'를 우려하지만, 사실 그 전에 걱정해야 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립 생활'이다. 죽음체험으로, 유언장 남기기, 유서 써보기를 실천해 봄으로써 죽음을 가까이 느낀다. 존엄사, 안락사, 만족사(滿足死)를 주제로 토론해본다.
	생명과학의 기초지식 (생명공학)	인체라는 시스템을 이해해보는 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자. 인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모든 영역의 공통적 지혜이다. 자신의 건강 카르테(Karte)를 만들어보자!
F. 미래학	미래학, 여성을 만나다 (철학)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발굴, 미래 이미지와 미래 비전을 선택해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 여성이 가진 인문적 감성과 그로 인해 형성 가능한 상상력으로 각 분야에 다가올 이미지를 설정해 미래 여행을 구성해 본다.
	고전에서 '지금'을 읽다 (문학)	고전 속에서 '시대의 여성'들을 '지금, 여기에' 불러내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사임당, 허난설헌, 나혜석 등 선각자들이 펼쳤던 당대의 활약상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숲의 식물도감 (생물학)	코로나 시대, '인간의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관점에서 가까운 숲속의 사계절을 탐구하는 시간. 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은 인간에게 무궁한 영감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선사해준다.

VI 결론

1. 정책적 함의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50+ 여성 1인 가구들의 '나 혼자 산다' 활동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음
 - '나마너함(나와 마주 보고, 너와 함께하는)' 인생 학교 학습모델 제시로, 홀로서기의 에너지를 비축해 '잘, 혼자되는' 삶을 구상할 수 있음
 - '개인'을 회복, 획득하고 '타인'을 인지하는 인문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음
 - 새로운 표준이라 할 수 있는 1인 가구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음
 - 건강한 개인의 형성으로, 성숙한 공동체 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

2. 활용방안

- 전국 평생교육 기관의 평생학습 교육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각 인문학 커뮤니티의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에 활용 가능함
- 중앙 정부의 여성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지자체의 50+ 독신 여성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함

✓ 참고문헌

- 김가배, 박분필, 박종숙, 최윤정, 한향순, 김애란, 김광덕(2017). 『액티브시니어 : 새로운 인생』. 서울: SUN.
- 김웅철(2017). 『초고령 사회-일본에서 길을 찾다』. 서울: 페이퍼로드.
- 김현철(2020.7.1). 성인 10명 중 4명 "나 혼자 산다." 뉴스원.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3982479>
- 사이토 다카시 저, 황혜숙 역(2019).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센시오.
- 서정렬(2017). 『1인 가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환중(2001). 한국의 근대적 개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 : 1910년대 이광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에릭 클라이넨버그 저, 안진이 역(2013).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퀘스트.
- 우에노 치즈코 저, 나일등 역(2011). 『싱글, 행복하면 그만이다: 혼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보다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 이덴스리벨.
- 이상춘(2003). 『다시 태어나는 중년』. 서울: 한문화.
- 이상화(2013). 『나 혼자도 잘 산다-1인 가구 450만 나는 대한민국 솔로대』. 고양: 시그널북스.
- 임주형, 나상현(2020.6.24). 나홀로 가구 600만시대. 서울신문. 5면.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4005014>
- 정봉찬(2016) 『미래학, 인문학을 만나다』. 서울: 도서출판 지식공감.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서울: 교양인.
- 조혜승(2020.6.23). 국내 1인 가구 600만 돌파... 여성 취업자 가구 158만 가구 달해. 여성신문.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94>.
- 후지모리 가츠히코 저, 김수홍 역(2018). 『1인 가구 사회: 일본의 충격과 대응』. 파주: 나남.
- 홍현진, 강민수(2016).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 1인 가구를 위한 마을사용설명서』. 청도: 오마이북.

ISSUE PAPER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2020년 광주형 50+ 당사자연구

- 수행기관** 협동조합 한국50플러스 희망발전소
(사)빛고을정책연구센터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 자문위원** 차성현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 연구담당** 곽유미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김혜영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실
- 발행처**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 발행일** 2020년 12월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 연락처** TEL 062) 600-5233 FAX 062) 941-5220
- 디자인** (주)상상오



ISSUE PAPER

노후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위하여
2020년 광주형 50+ 당사자연구